



당신만을 위한 1:1 맞춤 자산관리

TWO CHAIRS

SEPTEMBER+OCTOBER
2024 vol.68

SPECIAL THEME Green in the City **LIFE &** 동서양의 완벽한 조화, 말레이시아 플라카
SENIOR+ 뜻밖에도 만난 가을 **WEALTH &** 프라이빗에 시크릿을 더한 완전한 자산관리, 우리은행 TCE 본점센터



당신이 누구든
무엇을 원하든



금융생활의 A부터 Z까지
우리 안에 다 있으니까



우리 금융 생활의
A TO Z

여유로운 시간을 선사할 추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점점 길어지는 여름 무더위가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TWO CHAIRS〉 9+10월호에서는 한층 더 성숙해지고 있는
도시의 그린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알아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환경에 대해 달라진 사람들의 인식과
친환경적 변화를 주도하는 도시와 기업을 소개합니다.

빠르게 발달하는 AI의 활용법과 전시마다 독창적 표현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다니엘 아삼 전시, 클래식 공연의 질을 좌우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클래식 공연장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는 국내 MZ들의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식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레시피도 담았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홈메이드 한과를 만들며 명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CONTENTS

SEPTEMBER+OCTOBER

SPECIAL THEME



- 06 INTRO** 그린 이슈
- 08 LIFESTYLE** 푸르게 살으리랏다
- 14 CITY** 녹색 도시들
- 22 COMPANY** 이로운 그들

LIFE &



- 28 TRAVEL** 동서양의 완벽한 조화
말레이시아 플라카
- 36 EXHIBITION** 1,000년 후 북한산에서 만나는 아테나 여신상
- 40 ARCHITECT** 한계를 뛰어넘는 도시 설계자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 마스
- 46 PLACE** 동서양의 만남, 화려함의 진수를 보여주다
Grand Lisboa Palace Resort Macau
- 52 WHAT'S HOT** '요즘 AI'와 노는 방법
- 56 CULTURE** 다시 돌아온 새 천년 감성
- 60 CLASSIC STORY** 제2의 악기, 국내 최고 클래식 공연장 BEST 5



COVER STORY

더 칼 라거펠트 마카오의 '더 북 라운지'. 생전 라거펠트가 엄선한 4,000여 권의 장서로 채워져 있다. 라거펠트의 파리 저택의 서재를 본떠 디자인 됐으며 이곳에서 식사는 물론 프렌치 디저트류와 샴페인 등을 즐길 수 있다.

SENIOR PLUS



- 66 REPORT** 노년, 나의 행복을 찾는 시간
- 70 LOCAL TOUR** 뜻밖에 만난 가을
- 76 SIGNATURE HOLE** 아름다운 풍광 속에 숨은 벙커 108개
- 80 GOLF LESSON** 백현범 프로의 원 포인트 레슨
- 84 RECIPE** 전통과 현대가 만난 요즘 한과
- 90 HEALTH** 가을이라 그런 게 아니다...
계절성 우울증 주의보

WEALTH &



- 94 MEET** 우리은행 TCE본점센터
프라이빗에 시크릿을 더한 완전한 자산관리
- 100 INVESTMENT** 희비가 엇갈리는 유가와 금값
- 104 REAL ESTATE** 인구 변화가 가져올 부동산 투자 환경의 변화
- 108 TAX STORY** 2024년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
- 112 READERS LETTER**

QR코드 아이콘 가이드 유튜브 등을 보면서 쉽게 따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발행 및 편집인 하영춘 발행처 한국경제매거진(주) 발행일 2024년 9월 1일 2024년 9-10월호 제9권 제5호(통권 제68호)
디자인·인쇄 한국경제매거진(주) 등록번호 서울 중 마00097

격월간 <TWO CHAIRS>는 한국경제매거진(주)이 우리은행 PB고객 멤버십 서비스를 위해 제작하는 매거진입니다.
격월간 <TWO CHAIRS>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WO CHAIRS>에 실린 글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에 따른 기사입니다.

※매거진 수신 거부 및 주소 변경을 원하실 경우, 우리은행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 믿고 앉아만 있으면 돼”

오직, 당신에게만 집중하는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를 만나보세요

자산관리의 A TO Z TWO CHAIRS



Green in the City

지구온난화와 기후 위기 등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린시티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도시와 사람들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영으로 주목받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며 모두가 함께 만드는 그린 라이프스타일의
현주소를 조망해봅니다.

SPECIAL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 TWO CHAIRS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별 자산현황과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추천 및 세무, 부동산 분야
전문가 상담 지원

TWO CHAIRS 기본서비스

전용 상담공간, 대어금고 서비스,
사크링뱅크 서비스,
해외 유학·이주 상담 지원, TWO CHAIRS 매거진

TWO CHAIRS 특화서비스

호텔, 다이닝,
한우 배송, 가전, 꿀머니 등

※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는 가까운 영업점 상담직원에게 문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TWO CHAIRS 기본서비스는 우리은행 TC등급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영업점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TWO CHAIRS 특화서비스는 금융거래 현황에 따라 선정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은행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상담가능시간: 평일 9:00~18: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불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3158(2024.04.02-2025.03.31)

그린 이슈

매해 가장 더운 해를 경신하며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더 커지고 있다.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의식 수준과 생활 방식까지, 이제 중요한 건 바로 '그린'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이슈.

Writer: 유나리 *Illust.* 게이이미지뱅크
Reference: 한국환경연구원 '2023 국민환경의식조사'



69% 환경, 관심 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전국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총 3,088명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묻은 '2023 국민환경의식 조사'에 따르면 총 69%의 응답자가 전반적 환경문제에 대해 평소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살았던 중 가운데 가장 영리한 종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행성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동물학자 인류학자 제인 구달

기후변화 이 문제가 시급하다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국내 환경문제는 바로 '기후변화'. 63.9%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꼽았다.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꼽힌 것은 2020년부터 해당 문항을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최초다. 응답 비중도 2021년 39.8%, 2022년 48.2%, 2023년 63.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는?

1위 기후변화	63.9%
2위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문제	58.4%
3위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문제	50.1%
4위 과대 포장에 따른 쓰레기 발생	27.3%
5위 생태계 훼손(산림, 습지 등)	25.6%

기후우울증 21세기의 새로운 질환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느끼는 주된 감정은 '불안감'(83.1%).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어떤 재난이나 위협이 닥칠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다. 이렇게 기후변화를 실감하며 느끼는 불안증을 일컫는 '기후우울증'이라는 용어도 생겼을 정도다. 유엔환경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와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더 심화된다고 언급했다.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 사막이 남는다. 작가 정치가 프랑수아 르네 드 샤토브리앙

환경친화적 → 행동 편리함 불편해도 환경이 우선

다행히 불편하고 번거로워도 환경을 위해 감수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2023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환경친화적 행동을 우선한다'는 대답이 61.7%로, '생활의 편리함이 우선이다'는 대답(19%)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환경 보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52.4%로 과반을 차지했다.

8.82개 친환경 행동, 이만큼 실천

'2023 국민환경의식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1인 평균 8.82개의 친환경 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실천하는 친환경 행동은 장바구니 이용(82.2%), 쓰레기 분리배출(80.5%),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80.3%), 급발진·급제동 자제 및 정속 주행하는 친환경 운전(79.8%), 짧은 거리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78.7%), 적정 실내 온도 유지(74.2%), 낭비되는 물 소비 줄이기(71.6%), 대기 전력 차단 콘센트 등 전기 아끼기(67.8%)였다. ☺

37.1% 객관적 실천 정보가 필요해

'2023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 환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37.1%로 '충분하다'(11.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필요한 환경 정보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법'을 주로 꼽았다. 또 주변에서 접하는 환경 정보에 대해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51.7%)는 문제 점도 토로했다.

환경을 파괴하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진정 '짧고 굵게 살다 간종'으로 기록되고 말 것이다. 동물생태학자·이화여대 석좌교수 최재천





푸르게 살으리랏다

자연을 지키려는, 그럼으로써 더 인간답게 살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요즘의 그린 생활법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Writer: 유나리 Photo: 게티이미지뱅크, 산림청, 언스플래시, 한경DB

초록을 가까이 두고 살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것일 터. 아파트를 설명할 때 ‘숲세권’(공원이나 숲이 거주지에 인접한 자연 친화적 위치) 같은 신조어가 나오고, 도심 공원이나 수목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대표적 도심 속 수목원인 국립세종수목원의 누적 관람객은 개원 3년 9개월 만에 300만 명을 돌파했고, 수원 시내 어디서든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수원수목원은 개장 1년 만에 방문객 77만 명을 넘었다.

산림청에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기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을 선정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숲은 여름철 한낮 평균기온이 도시 중심보다 약 3~7℃ 낮고 평균 습도는 9~23% 높다. 이 덕분에 도시 열섬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는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40.9% 감소해준다. 1헥타르의 도시숲은 연간 평균 6.9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에도 대응한다. 우

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도시 안에서 자연의 가치는 점점 높아진다. 공원이나 수목원 같은 곳은 누구나 동등하게 초록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현대사회의 열린 공간이라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분리수거나 일회용품 덜 쓰기 등을 실천하는 것을 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를 인지하고 주장한다. 요즘 세대는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로 ‘기후변화’를 꼽을 정도로 환경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기후변화로 미래 변화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도 83.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나 폭염의 기상이변 같은 변화가 체감되기 때문이다. 이제 환경에 관해서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가까이 있는 자연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조금이라도 더 자연을 지키고 함께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지키고 관심을 가지며 의식 있게 사는 것, 아파트 빌딩 숲에는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를 찾아다니며 관찰하거나, 수목원을 비롯한 자연을 적극적으로 찾고 함께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이다.

취미에서 운동으로, 확장되는 세계

얼마 전 울산에 사는 중학생이 울주군 서생 해안가에서 세계적 희귀 새인 청다리도요사촌을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청다리도요사촌은 전 세계적으로 500~1,300여 마리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 위기종인 국제 보호조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 위기 야생동물 1급이다.

학생은 울산 내 새 관찰 모임인 ‘ 짹짹계소’에서 활동 중인 열성적인 조류 전문가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울산 해안에 귀한 새가 찾아왔다”며 “새들이 온전하게 쉬어 갈 수 있게 서식 환경이 보존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SNS에는 충남 보령시에 있는 회전 교차로 CCTV에 멸종 위기종 새호리기가



산림청이 지정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꼽힌 충북 청주 원흥이생태공원 도시숲.



도심의 자투리 공간도 잘만 활용하면 좋은 도시 숲이 된다. 경북 포항시의 포항 철길숲 또한 ‘아름다운 도시숲’ 중 하나로 꼽혔다.

잡혀 화제가 됐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CCTV를 들여다보며 새호리기를 확인하고 인증샷을 올렸다. 귀여운 자태에 “도시에서 사느라 고생 많다”, “응원한다”부터 “화제가 돼 수집가들의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모였다. 국내에도 최근 몇 년 사이 새를 관찰하는 탐조인이 늘었다. 연령대도 초등학교까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며, 탐조 프로그램도 늘었다.

이런 생명에 대한 관심이 생태계까지, 온 지구까지 확장되고 있다. <버드걸>이란 책엔 사소하게 시작된 생명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어 어디까지 아우를 수 있는지, 경이로운 확장 세계가 담겨 있다. 저자는 14세에 자선단체를 설립



도시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고 있다는 깨달음을 주는 도시 탐조



한 CCTV에 포착된 멸종 위기종 새호리기. 이 새를 보려고 국도 CCTV만 본다는 인종이 올라올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하고 17세에 전 세계 새의 절반을 관찰한, 세계적 탐조인이자 환경운동가다. 어린 시절부터 지속해온 탐조 여행을 통해 서식지 파괴가 인간과 야생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목격하고 깨달은 위험성을 블로그에 차근차근 담아왔다. 이 블로그에 공명한 전 세계 사람이 그와 연대하기 시작했고, 저자는 환경 보전 단체와 손잡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이름을 떨치는 활동가가 됐다.

2015년 출간된 <국내 동물원 평가 보고서>의 저자는 고등학생이다. 어릴 적부터 동물원에 관심을 가진 저자는 국내 주요 동물원 아홉 곳을 직접 돌아보고 종 보전, 동물 복지, 동물에 대한 교육과 연구 등 현대 동물원의 역할에 맞춰 평가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출간했다. 무려 3년간 이 활동을 지속했다. 어떤 대가나 평가를 바라고 한 작업은 아니었다. 온전히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선의가 이렇게 방대한 사료가 됐다. 실제 환경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은 점차 늘고 추세를 이룬다. 이들에게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기성세대보다 더 절실하다.

지난 2020년에는 청소년 환경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기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구인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의 내용이 불충분해 미래 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 청소년 청구인들은 공개 변론에 앞서 "우리는 정부를 향해 기후 위기 대응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법 소원을 통해 그 권리를 되찾아오고 싶다고 밝혔다. 기후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공개 변론 재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미래, 우리가 사는 지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라며 당당하게 밝히기도 했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날까? 지난 2023년 8월 미국에선 몬태나주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낸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 정부가 환경보호 및 개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는데, 판사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연한 것에 의문을

다양한 친환경 정책, 기업의 친환경 제품이 나오지만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쓰레기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좋은 친환경 실천법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것이다. 우리 삶을 무의

미하게 채운 물건을 더는 늘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무의미한 소비를 줄이겠다는 움직임이 커진 곳은 패션 분야. 특히 2000년대 패스트 패션이 인기를 끌면서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의류 생산량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2배 이상 증가했고, 1인당 구매 수도 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값이 싸니 적당히 마음에 들면 부담 없이 사고, 철이 지나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옷을 수거해가는 재활용함이 있으니 안심하기 쉽지만, 실제 매초 2.6톤에 달하는 옷이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중남미 최고의 중고 의류 수입 국가인 칠레의 아타카마사막에 쌓인 헌 옷 쓰레기 무덤은 이제 위성사진에서도 보일 만큼 규모가 커졌다. 중국의 쉬인에서 수출된 원자재 대부분은 가나, 케냐 등의 나라에 버려지고 있다. 결국 한번 만든 건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쓰레기로 남는다. 문제는 이런 쓰레기가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 비교적 저개발 국가에 쌓인다는 것. 결국 환경문제도 불평등과 연결된다.

패션은 그간 취향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여겨져 친환경 소비의 대상에서 다소 비껴 있었지만, 옷이 쓰레기라는 인

식과 함께 소비의 대가를 애먼 나라에서 지불하고 있다는 비판 및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의 이런 변화를 감지한 패션 브랜드들은 폐기되는 의류로 새 제품을 만들거나 헌 옷을 가져가면 리폼해주는 식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정책이지만, 옷을 '팔아야' 하는 브랜드 입장에서 이런 정책은 스스로가 주는 면책 정도에 불과하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는 패션 산업에서 나온다. 이는 항공이나 해운업계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그래서 넘치게 만들거나 사지 않고, 있는 건 가능한 한 버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정책 차원의 규제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3월 패스트 패션 제품에 약 10유로까지 단계적으로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내에서는 '소비 자본주의를 벗어나 이제 다시 입을 차례'라는 슬로건을 내건 민간 단체 '다시입다연구소'도 생겼다. 이 단체는 패션 기업의 무분별한 재고 폐기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입지 않고 옷장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의류를 교환해 입을 '21%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으로 지난 7월 11일 이탈리아 로마는 43°C를 기록했다.



스카이피아가 공개한 고해상도 위성사진. 우주에서 포착한 전 세계 최대 의류 폐기물 매립지, 칠레 아타카마사막이다. 동그라미 친부분 속 화색이 전부 의류 폐기물이다.

파티'를 연다. 21%는 구매한 옷 5벌 중 1벌(21%)은 다시 입지 않고 옷장에 들어간다는 다시입다연구소의 설문 결과에서 인용한 것이다. 초창기엔 작게 시작했지만, 올해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27개 지역에서 열릴 만큼 규모가 커졌다. 작년보다 참가자가 14배 증가한, 1100여 명까지 늘었다. 해당 취지에 공감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재활용 대신 수리할 권리를

현대사회엔 필요한 가전도 늘었다. 과거엔 더울 때 선풍기 하나로 버텼지만 지금의 살인적 더위는 에어컨 없이 버틸 수 없고, 습기를 없애기 위해 제습기, 건조한 공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습기, 옷 보관을 위해 스타일러 등등 필요하다고 알려진 가전도 지나치게 많다. 또 과거엔 휴대폰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었지만 이젠 내장형이라 배터리 수명이 다 되면 서비스 센터에 가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새로 산다. 하지만 이런 가전 역시 결국 쓰레기가 된다. 유엔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전자 폐기물은 5,740만 톤인데, 재활용률은 17.4%에 불과했다. 그래서 직접 고쳐 쓰는 사람도 늘고 있다. 소비자가 고쳐 쓸 권리인 '수리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 이미 프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의 보장을 요구하는 참가자들이 모인 '9·23 기후정의행진'

랑스에선 2021년 전자 제품에 '수리 가능성 등급 표기'를 의무화하며 수리권 보장에 나섰다. 프랑스 내에서 판매되는 세탁기, 스마트폰, 텔레비전, 노트북, 청소기 등 가장 일상적 가전제품은 수리 가능성 등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어지면 벌금을 내야 한다. 유럽연합은 올 7월 소비자 수리권을 공식 발효했다. 이 법안은 수리하지 않고 폐기하는 제품으로 인해 유럽연합에서 매년 발생하는 3,500만 톤의 폐기물과 2억6,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생겼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는 '기술 수리 권리법'을 통과했다. 이는 소비자가 비싼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정품 부품과 수리 매뉴얼 제공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국내도 늦었지만 수리권에 대한 인지와 요구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일부 제품에 한해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수리하는 자들'은 수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 교환도 할 수 있다. 서울 마포엔 '수리상점 곰손'도 문을 열었다. 일반 소비자가 수리 방법을 배워 전자 제품, 도자기 등 생활용품을 직접 고칠 수 있는 곳이다. 국내 1호 리필 스테이션인 '알맹상점'의 운영진이 모여 연 곳이다. 고장 나면 수리해서 오래 사용해 안 사고 안 버리는 것, 단순한 재활용보다 친환경의 핵심에 더 다가간 움직임이다. ●

친환경을 배우고 경험할 곳 3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도시 숲의 역할에 따라 분류한 전국의 아름다운 도시 숲 50곳. 국민 3,062명이 추천해 선정된 곳이다. 전국 각지의 아름다운 숲을 하나씩 방문해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 일듯.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내 산림정책 → e산림정책도서관



탐조책방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는 '탐조'를 주제로 하는 서점. 탐조에 필요한 쌍안경과 해외 도감 등은 물론, 새와 관련한 300종 이상의 서적을 취급한다. 매달 탐조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92 농민회관 제1별관 201호
☎ 010-9239-6022,
📍 인스타그램 @_bird_books



수리상점 곰손

우산부터 깨진 그릇, 배터리 성능이 다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물건을 고치는 법을 알려주는 워크숍, 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리페어 카페.

☞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8길 6 지하 1층
☎ 0507-1402-1917
📍 인스타그램 @gomson_repair

환경에 대한 책, 그리고 미디어



〈버드걸〉

7대륙 40개국을 여행하며 전 세계 새의 절반인 5,000여 종의 새를 관찰한, 그레타 톤베리의 뒤를 이어 주목할 환경 활동가로 떠오른 저자 마이아로즈 크레이그의 흥미로운 환경 에세이. 종과 생명, 환경에 대한 사랑과 깨달음이 인간을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 잘 보여준다. 마이아로즈 크레이그 지음, 문학동네 펴냄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자재 제조부터 의류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해악을 하나씩 풀어쓴 책. 패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악, 무의식적인 소비가 불러오는 결말을 알고 싶다면 읽어 볼 것. 이소연 작가, 돌고래 펴냄



〈고등학생의 국내 동물원 평가 보고서〉

인간이 만든 도시의 야생동물 서식지, 동물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직무 유기 동물원과 우매한 관광객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국내 동물원에 대한 실태 보고서. 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저자가 3년간 국내 9개 동물원을 돌며 현실을 기록했다. 최혁준 지음, 책공장더불어 펴냄

〈웨이스트 랜드〉

은 지구를 점령한 쓰레기에 대한 충격적 실태 보고서. 인도의 쓰레기 매립장, 가나의 의류 쓰레기 투기장, 영국의 하수처리장 등 굵직한 쓰레기 현장을 직접 취재했다. 올리버 프랭클린-월리스 지음, RHK 펴냄



〈KBS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옷은 지구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 우리가 입는 옷이 특정 국가에, 지구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실감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의류 매립지가 만든 들판에서 풀 대신 합성섬유를 뜯는 소들을 보노라면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길 없어진다.

지구를 지키는 용사들의 뉴스레터 '지구용'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하는 친환경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 다양한 환경 이슈 중 지금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쉽게 풀어보내준다.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등 친환경상식 지수를 높이고 싶다면 구독할 것. 구독하기

☞ page.stibee.com/archives/110917



Amsterdam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강 하구에 독을 쌓아 만든 도시라 일찍부터 해수면 상승 등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사회적 기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택과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요 목표로 두고 지표면 아래 150~200m 대수층을 활용하는 대수층 축열 시스템(Aquifer Thermal Energy Storage)을 구축, 수열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기존의 가스 난방을 대체했다. 암스테르담은 2040년까지 모든 건물에서 천연가스 사용을 중단할 예정이다. 암스테르담 주택 30%에 이르는 임대주택 개념의 '사회 주택' 중 전기뿐 아니라 열까지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 건물도 있다. 또 2030년엔 교통 분야 탄소 중립이 목표다. 이미 암스테르담은 2017년 트램을 풍력 재생에너지로 바꿨고, 버스는 2025년까지 모두 전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부 페리 구간은 전기로 바꾸며 무상 운영한다. 2021년엔 시내에 있던 1,300여 개 차량 주차장을 없애거나 외곽으로 옮기고, 대신 자전거 도로나 도보 공간으로 바꿨다. 암스테르담 시내 중심부는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이곳의 자전거 교통 수단 분담률은 30%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2% 수준이다.

녹색 도시들

환경문제는 정부, 지자체 등 조직 차원의 움직임이 필수다. 거대한 틀을 바꿔야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시야도 바뀐다. 여기 도시와 자연,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두 가치와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시들이 있다.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전 세계 친환경 도시로 떠나본다.

Writer: 유나리 Photo: 게티이미지뱅크, 밴쿠버 관광청(www.destinationvancouver.com), 암스테르담 관광청(www.iamsterdam.com), 코펜하겐 관광청(www.wonderfulcopenhagen.com) Reference: DGB Group,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신홍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



덴마크 코펜하겐

친환경 도시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도시.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는 총 546km의 자전거도로가 깔려 있고, 전체 주민의 62%가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전기 페리가 다니며, 사용하는 전력의 80%를 태양열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쓰레기를 태운 열로 난방하며, 시원한 바닷물로 건물 냉방을 한다. 이렇게 지역 난방을 친환경으로 확장하고 전환하려 노력하는 중이다. 2025년 100%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목표이고, 이런 노력 덕분에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펜하겐의 노력은 1990년대부터 꽤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1970년대 두 차례나 석유파동을 겪으며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던 기존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졌고, 바람이 센 특징을 활용해 풍력으로 도시 기반 에너지를 교체해나갔다. 이렇게 도시의 작동 기반을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며 획기적으로 탄소를 감축할 수 있었다. 자전거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를 확장하고, 도로 공사와 대기 정보 및 혼잡도 등에 따른 도착 예상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 자전거 표지판을 만드는 등 시스템 구축에 힘썼다. 라이프스타일을 변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잘 알려주는 모범 사례가 바로 코펜하겐이다.



Copenhagen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아이슬란드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친환경 선두 국가다. 화산이 많아 지열 에너지가 풍부해서 가능한 일이다. 공공 수영장도 뜨끈한 온천수일 정도로 땅 밑에 펄펄 끓는 온천수가 풍부하다. 당연히 난방은 90%가량 지열을 활용한다. 아이슬란드의 수도이자 온천 도시로 유명한 레이카비크는 지열을 활용한 지역난방 시스템을 잘 갖춘 대표적 도시로, 전기와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지열로 충당한다. 그래서 7월에도 난방

을 해야 할 정도의 기후지만 집마다 굴뚝도 없고 공기도 맑다. 친환경 도시 대부분이 자전거라는 무동력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레이카비크에선 수소가 대세다. 이미 1998년 아이슬란드는 '2050년까지 모든 화석연료를 물의 전기분해로 나오는 수소로 대체해 자국에서 발생하는 온실효과 가스를 제로로 만들 것'을 목표로 삼고, 수소경제 프로젝트를 국책 사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2002년부터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가 목표다. 또 레이카비크 도심엔 야생 서식처가 있어 바다표범, 큰까마귀, 호박벌 등 다양한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Reykjavik

캐나다 밴쿠버

북미 도시 중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낮은 도시, 바다·산·숲으로 둘러싸여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곳, 국제 환경 단체 그린피스 Greenpeace의 탄생지, 바로 캐나다의 밴쿠버다. 캐나다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데도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대표적 친환경 도시다. 일찍부터 친환경 도시 사업 계획 Green City Action Plan을 수립하고, 매해 더 깨끗한 도시 환경 만들기에 집중해왔다. 이미 도시 전력의 93%를 풍부한 수력 등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충당하며,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에너지 효율을 보장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무분별한 개발이나 건설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에너지 낭비를 원천 봉쇄한다. 밴쿠버의 목표는 2040년까지 폐기물 제로 도시로 만드는 것, 2050년에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Vancouver



Curitiba

브라질 쿠리치바

이미 20여 년 전부터 '꿈의 생태 도시'로 일컫는 브라질의 쿠리치바는 잘 짜인 도시계획이 어떻게 도시를 바꿀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쿠리치바는 슬럼화가 진행된 인구 과밀의 회색 공해 도시였지만,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지금에 이르렀다. 1970년대부터 도시 확장을 엄격히 통제하고, 강 주변은 보호구역으로 묶어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었다. 또 도로 중앙에 버스 전용 차선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다. 공공장소를 지을 땐 버려진 부지와 건물을 재활용했고,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 오면 버스트콘이나 식품 교환권으로 바꿔주는 녹색 교환 정책을 펼쳐 쓰레기 분리수거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노력 덕분에 인구 190만 명이 넘는 대도시지만 1인당 녹지 면적은 서울의 10배가 넘는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서울의 1.2배 크기 땅에 560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산다. 고층 빌딩 숲에서 싱가포르의 친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도시계획 목표를 '정원 속의 도시 City in a Garden'로 정하고 바이오필릭 Biophilic을 택했다. 이는 생명체 Bio에 사랑 Philia를 더한 개념으로, 도심 속 생활환경에 자연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도시계획 방법론을 말한다. 그래서 싱가포르 내 고층 빌딩은 수직 정원을 갖춘 곳이 많다. 또 접근성이 떨어지던 3개 공원을 연결해 10km 길이의 거대 산책로 '서던 리지스 Southern Ridges'를 만드는 등 빌딩 숲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게 설계했다. 앞으로는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도 취한다. 이전에는 쓰레기 배출 감축, 수자원 절약 등 사후 관리 성격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국가 기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꾼다. 자전거도로를 현재 3배까지 늘리는 등 시내 교통량의 75%를 대중교통으로

대체해 주요 탄소 배출 원인을 줄이고, 2025년부터 디젤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2040년에는 100% 전기자동차 대체가 목표다. 또 환경친화적 부문엔 절세 혜택을 주고, 오염을 유발하면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등 세금 제도도 개편한다. 전기자동차를 사면 현재 425만 원에 이르는 자동차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식이다. ☀



Singapore



이로운 그들

기업이 바뀌지 않으면
자원 추출-생산-유통-소비-폐기로 이어지는
현재의 경제구조를 바꿀 수 없고,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은 요원하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업은 어디일까?

Writer: 유나리 Photo: 게티이미지뱅크, 각 사
Reference: 스태티스타, 코퍼레이트 나이즈, 코트라

*스코프란? 총 1,2,3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비재무적인 ESG 지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에너지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만드는 프랑스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자사의 탄소 배출은 물론, 고객사의 탄소 배출량까지 감축해주는 솔루션 제공 기업이다. 2023년까지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고객 탄소 배출량을 1억1,200만 톤 가까이 절감하게 했고, 자사 상위 1,000개 공급 업체의 탄소 배출량을 총 27%나 감소시켰다. 이들은 202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우고, 산업 전 영역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성 영향¹Schneider Sustainability Impact, SSI 프로그램을 개발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 노력한 덕분이다. SSI는 유엔에서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²UNSDGs를 이루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 이런 노력에 힘입어 <타임>과 데이터 기업 스태티스타가 선정한 '2024 세계 최고 지속 가능성 선도 기업' 1위를 차지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생산하는 모든 제품과 장비가 디지털화돼 연결성을 갖추게 한다. 에너지 소비량 등을 자동으로 측정·수집하며, 머신 러닝이나 인공지능으로 효율화 방안을 빠르게 도출한다.



몽클레르

섬유-패션 기업 몽클레르의 행보도 주목할 만하다. 2023년 미국의 신용 평가사 S&P의 글로벌 기업 지속 가능성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9점을 받아 3년 연속 섬유·의복 및 럭셔리 산업 분야 1위를 차지했다. 현재 패션 기업 가운데 가장 친환경적 기업이라는 의미다. 몽클레르는 '전략적 지속 가능성 플랜 2020~2025'를 세워 기후 행동, 순환 경제, 공정 소싱, 다양성 강화, 지역사회 환원 등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펼친다. 재활용 나일론-폴리에스테르, 유기농면, 양모 등 소재를 지속 가능성 기준에 맞춰 생산하고, 쇼핑백과 포장지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다. 나일론 스트랩은 80% 이상 재활용하고, 직영 사무실과 매장, 공장 및 물류 허브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기존 대비 물 사용량을 70%까지 줄인 새로운 다운 제작 공정도 마련했다. 2023년 가을-겨울 시즌을 끝으로 모피 제품도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



몽클레르는 2023년 전체 시즌에서 재활용 소재로 만든 나일론을 40% 사용했다. 2022년에는 15%였다. 또 스코프 1, 2는 2021년보다 50% 감축했다.



브람블스

현대사회는 거대한 물류 사회다. 이에 친환경 물류를 이룰 수 있도록 재사용 운송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호주 의 물류 관련 제조 기업인 브람블스는 재활용이 가능한 화물 운반대와 운반용 상자, 컨테이너를 생산한다. 재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상자와 팔레트 및 특수 용기로 구성된 공급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브람블스는 <타임>과 데이터 기업 스태티스타가 선정한 '2024 세계 최고 지속 가능성 선도 기업' 4위를, 코퍼레이트 나이즈³Corporate Knights가 평가하는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100대 기업'에서 2위에 꼽혔을 정도로 지속 가능 경영에 힘쓰는 기업이다. 이들은 2025년까지 나무를 한 그루 사용할 때마다 두 그루씩 심어 자연을 보전하고,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예정이다.



브람블스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2023년 동안 고객사는 300만 그루의 나무를 살리고, 올림픽수영 경기장 1,711개에 달하는 물을 아꼈으며, 19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루미나

의학의 비약적 발전은 동시에 의료 폐기물 문제도 낳았다. 특히 코로나19를 지나며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진단 키트 등은 엄청난 쓰레기와 슬한 동물실험 등으로 환경과 생명 파괴의 새로운 주범으로 떠올랐다. 의료 업계도 더는 친환경 행보를 늦출 수 없는 이유다.

이 와중에 세계 최대의 유전체분석 장비 제조업체인 미국의 일루미나는 지속 가능한 분석 시퀀싱을 지원하는 분석 시스템인 '노바섹 X'⁴NovaSeq X'를 공개하면서 기존 대비 포장 폐기물과 중량을 90% 이상, 플라스틱 사용량은 50%가량 줄여 주목받았다. 드라이아이스 없이 상온 운송도 가능해 폐기물량도 줄었다. 이를 통해 연간 드라이아이스 사용량은 약 500톤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타임>과 스태티스타가 선정한 '2024 세계 최고 지속 가능성 선도 기업' 5위에 랭크되며 해당 분야 1위에 꼽혔다.



일루미나는 2050년까지 스코프 1, 2, 3 모두를 포함한 넷 제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노바섹 X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61%까지 줄였다.



심스리미티드

호주의 금속 재활용 기업 심스 리미티드는 전 세계 30개국에서 수집한 폐기물에서 철과 구리, 알루미늄 같은 금속 원자재를 추출해 가공해서 판매하는 회사다. 심스는 2023년 약 800만 톤의 철과 비철 금속을 재활용해 판매, 고객이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총 1,16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방지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또 북미에서 운영 중인 기업체가 RE100(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도 달성했다. 이들은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3% 감축하기로 한 목표를 2023년 조기 달성하기도 했다. 이런 고주적 활동에 힘입어 캐나다의 투자 리서치·미디어 그룹 코퍼레이트 나이트가 평가하는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100대 기업'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A+를 받으며 1위로 꼽혔다.



심스 리미티드는 탄소 감축을 위해 공장과 차량에 전기를 주로 사용한다. 이에 2025년까지 100% 재생 가능한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SGS

각종 검사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SGS는 <타임>과 스타티스타가 선정한 '2024 세계 최고 지속 가능성 선도 기업' 6위, 해당 업계 1위를 차지했다. SGS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전한다는 야심 찬 탈탄소화 목표를 정했다. 또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구현, 그룹 총소비량의 97%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유엔 산하 기관인 유엔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 UNGC 준수 등 폭넓고 효율적인 친환경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은 기업 직접 배출량인 스코프 1, 간접 배출량인 스코프 2 46.2% 감소 달성을 위해 감소 추세를 유지하며, 기업이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자원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 3를 28% 줄일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 2019년 대비 스코프 1, 2 발생량을 14%나 감축한 상태다.



2023년 실험실 내 환경오염을 얼마나 줄였는지 평가하는 리프LEAF 인증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골드를 받았다.



텔레포니카

<타임>과 스타티스타가 선정한 '2024 세계 최고 지속 가능성 선도 기업' 9위로, 이동통신 분야에선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스페인의 이동통신사다. 텔레포니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고, 2021년 에코 스마트 솔루션을 출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79만 톤 이상 감축했다. 이는 나무 1억4,3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수치다. 이들은 2025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2040년에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다. 또 2030년까지 친환경 설계, 수리, 재사용,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제로 웨이스트 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도 완성할 예정이다.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대신 재활용해 원자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2021년 약 500만 개의 전자 장비를 재사용해 폐기물 98%를 재활용한 바 있다.



텔레포니카는 2025년까지 주요 사업장의 소비 전력을 100% 재활용 에너지로 대체하고, 스코프 1, 2를 2015년 대비 90% 절감할 예정이다.



지멘스

독일 엔지니어링 기업인 지멘스는 2008년 분식 회계, 공급횡령, 뇌물 제공 등 부패가 밝혀져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후 기업 경영진의 준법 경영 업무 등을 명시하는 등 청정 경영에 힘썼다. 그 결과 2022년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지수 DJSI' 산업 대기업 부문 선도 기업에 선정되는 등 명예를 되찾았다. 이들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본다. 유엔 의제 2030의 일환으로 빈곤 종식, 지구 보호 등을 장기 ESG 목표로 설정하고 탈탄소화에 집중한다. 지멘스는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선언한 최초의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다. 2022년 이미 전 세계 사업장의 소비 전력 77%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했으며, 2019년 대비 46% 탄소 배출을 줄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타임>과 스타티스타가 선정한 '2024 세계 최고 지속 가능성 선도 기업' 11위, 해당 산업 분야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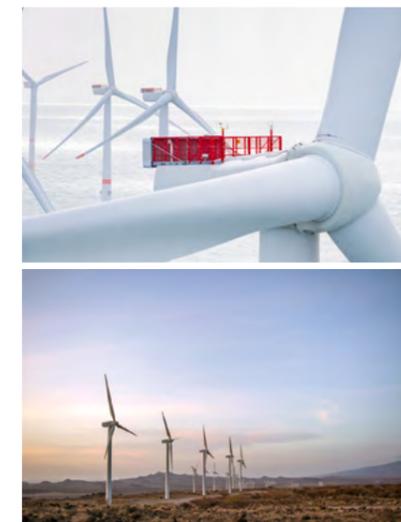


지멘스는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탄소 중립 실천을 선언한 최초의 글로벌 기업이다. 신사옥은 이전 건물 대비 전기를 90%, 물은 75% 덜 소비하게 설계했다.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

풍력은 석탄보다 탄소 발자국이 99% 낮지만, 궁극적으로 풍력발전 단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와 부품을 만들 때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야 진짜 친환경이 된다. 부품과 원자재는 현재 풍력 터빈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 세계 최대의 풍력발전용 터빈 생산업체인 덴마크의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 A/S는 동종 업계 경쟁자인 오스테드와 협약을 맺고 공동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저탄소 강철 타워 및 재활용 재료로 만든 블레이드(날)를 설치하기로 협의했다. 베스타스는 이미 에폭시 기반의 블레이드 복합재료를 분해, 회수한 에폭시수지를 새로운 블레이드를 만들 때 재활용하고 있다. 또 베스타스는 스코프 1, 2 배출량을 2025년까지 55%, 2040년에는 100% 감축할 예정이다.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와 허브 부분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베스타스는 2030년 부품 재활용률을 100%까지 높일 예정이다.



삼성SDI

삼성SDI는 2004년 국내 최초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지수'에 18회나 편입되며 국내 기업 중 최다 기록을 세운 친환경 선도 기업이다. 2050년까지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탄소 중립을 달성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국내 전 사업장이 UL 솔루션즈에서 '폐기물 매립 제로' 인증 중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 또 이차전지 업계 최초로 카본 트러스트 Carbon Trust로부터 탄소 발자국 인증도 받았다. 올해 4개, 2025년 8개까지 인증 제품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또 LNG 사용을 줄이기 위해 LNG 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대체하고, 공정에서 생긴 폐열을 재사용할 예정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코퍼레이트 나이트의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100대 기업' 중 국내 기업으로는 가장 높은 순위인 53위에 랭크됐다. 이는 전년보다 8계단 상승한 것이다. 🌱



삼성SDI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11.6톤, 2022년 8.3톤, 지난해 6.4톤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WOORI BANK GLOBAL NETWORK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아트, 음악, 건축을 통해 마음의 눈을 키워보세요.
 더욱 풍성한 인생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Life &

해외 지점

뉴욕지점
 TEL 1-212-949-1900
 FAX 1-212-490-7146
 ADD 245, Park Ave. 43rd Floor, New York, NY 10167, USA

LA지점
 TEL 1-213-620-0747-8
 FAX 1-213-627-5438
 ADD 3360, West Olympic Blvd. Suite 300, LA, CA90019, USA

런던지점
 TEL 44-207-680-0680
 FAX 44-207-481-8044
 ADD 9th Floor, 71 Fenchurch Street, London, EC3M 4HD, UK

동경지점
 TEL 81-3-6891-5600
 FAX 81-3-6891-2457
 ADD Shiodome City Center 10th Floor Higashi-Shimbashi 1-Chome 5-2, Minato-ku, Tokyo

홍콩지점
 TEL 85-2-2521-8016
 FAX 85-2-2526-7458
 ADD Suite 140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Hong Kong

싱가폴지점
 TEL 65-6223-5854-6
 FAX 65-6422-2000
 ADD 10 Marina Boulevard #13-05 MBFC Tower 2, Singapore 018983 Singapore

바레인지점
 TEL 973-17-223503
 FAX 973-17-224429
 ADD P.O. Box 1151, 4th Floor, Entrance 1, Manama Centre Building, Manama, Bahrain

다카지점
 TEL 88-02-5881-3270-3
 FAX 88-02-5881-3241/3274
 ADD Suvastu Imam Square (1st & 4th Fl.) 65 Gulshan Avenue, Dhaka-1212, Bangladesh

구르가온지점
 TEL 91-12-4304-6700
 FAX 91-12-4304-6730
 ADD 1st floor, Salcon Platina Building, MG Road, Sector-28, Sikanderpur, Gurgaon-122001, Haryana, India

첸나이지점
 TEL 91-44-3346-6900
 FAX 91-44-3346-6995
 ADD Lotte India, 2nd Floor, No.4/169, Rajiv Gandhi Salai(OMR), Kandhanchavadi, Perungudi Taluk, Chennai-600096, Tamil Nadu, India

몰바이지점
 TEL 91-22-6263-8100
 FAX 91-22-6263-8198
 ADD Unit 601, 6th floor, Birla Centurion, Century Mills Compound, Pandurang Budhkar Marg, Worli, Mumbai, Maharashtra-400030, India

시드니지점
 TEL 61-2-8222-2200
 FAX 61-2-8222-2299
 ADD Suite 21.02, 126 Phillip Street, Sydney, NSW, Australia

두바이지점
 TEL 971-4-325-8365
 TEL 971-4-325-8366
 ADD 1102A, Level 11, The Gate Building, East Wing, P.O. Box 506760, DIFC, Dubai, United Arab Emirates

현지 법인

유럽우리은행
 TEL +49(0)69 299 254 0
 FAX +49(0)69 299 254 099
 ADD 29th floor, Messe-Turm,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러시아우리은행
 TEL 7-495-783-9787
 FAX 7-495-783-9788
 ADD 8th floor, Lotte Plaza, 8, Novinsky Boulevard, Moscow, 121099, Russia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TEL 62-21-5087-1906
 ADD Treasury Tower 26th, 27th FL, District 8 SCBD Lot 28 Jl.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캄보디아우리은행
 TEL +855 23 96 3333
 ADD Buliding 398, Preah Monivong Blvd, Sangkat Boeun Keng Kang 1, Khan Chamkarmon, Phnom Penh 12302, Kingdom of Cambodia

사무소

팔라렘푸르사무소
 TEL 60-3-2163-8288
 FAX 60-3-2163-9288
 ADD 32F, Menara Prestige, Jalan Pinang, 50450, Kuala Lumpur, Malaysia

우리파이낸스 미얀마
 TEL 95-01-643798
 ADD 115/A, Pyay Road, Saw Bwar Gyee Kone War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베트남우리은행
 TEL 84-4-7300-6802
 FAX 84-4-7300-6806
 ADD 34F, Keanganm Landmark 72, E6 Pham Hung Road, Tu Liem Dist, Hanoi Vietnam

브라질우리은행
 TEL 55-11-2309-4740
 FAX 55-11-3511-3300
 ADD Avenida Nacoes Unidas, 14, 171, Crystal Tower, Conj.803, Vila Gertrudes, 04794-000, Sao Paulo-SP, Brasil

홍콩우리투자은행
 TEL 852-3763-0888
 FAX 852-3763-0808
 ADD Rooms 1907-1909, 19/F, Gloucester Tower, The Landmark, 15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양곤사무소
 TEL 95-01-646951
 ADD No.115(A) First Floor, Pyay Roa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우리웰스뱅크 필리핀
 TEL 63-32-415-5265
 FAX 63-32-415-5266
 ADD Taft Financial Center, Cardinal Rosales Avenue, Cebu Business Park, Cebu City, Cebu

중국우리은행
 TEL 86-10-8412-3000
 FAX 86-10-8440-0698
 ADD Floor 11-12, Block A Building 13, District4, Wangjing East Park,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102

우리아메리카은행
 TEL 1-212-244-3000
 FAX 1-212-736-5929
 ADD 330 5th Avenue, 3Floor, New York, NY 10001, USA

폴란드사무소
 TEL 48-323-07-6417
 ADD Uniwersytecka 13, 40-007, Katowice, Poland

동서양의 완벽한 조화

Malaysia Melaka

말레이시아 말라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말라카 모습을 영상으로 미리 만나보세요.

대항해 시대 무역의 요충지였던 말레이시아 말라카. 이 도시는 16세기에 쌓은 포르투갈 요새, 17세기 지은 중국 사원, 18세기에 만든 네덜란드 교회 등 여러 나라의 역사가 얹힌 건축물이 남아 있다. 이런 독특한 풍경 덕분에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Writer: 두경아 Photo: 말레이시아 관광청



- 1_ 크루즈를 타면 가이드 해설과 함께 역사적인 건물과 유명 거리 등을 돌아볼 수 있다.
- 2_ 가장 아름다운 말라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말라카강

말라카는 말레이시아 말라카주의 주도로, 말레이반도 서쪽 연안에 위치해 있다. 말라카해협을 따라 형성된 이 도시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의 수많은 무역상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무역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강대국의 지배를 받은 아픈 역사가 있는 땅이기도 하다. 16세기 초반 포르투갈이 점령해 향료 무역을 독점하고, 가톨릭 선교의 기지로 삼았다. 17세기 중반에는 네덜란드가 빼앗아 지배했으며, 19세기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잠시 일본의 지배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강대국의 침략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말라카에 많은 식민지 유산을 남겼다. 건축물이나 운하 등 고풍스러운 유럽적인 색채를 보면 수많은 침략국 중 포르투갈의 영향이 가장 강하게 남아 있다. 이 유적들은 지금까지도 잘 보존돼 관광지로서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침략사 이전의 말라카는 말레이시아 전통적 도읍이자 문명의 발상지로 문화를 꽃피운 본거지였다. 14세기 테마섹(Temasek) 왕국(오늘날의 싱가포르)의 군주 파라메시와라가 이곳을 중심으로 이슬람 왕국을 건국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말라카 술탄국으로 이름을 바꾼 것도 파라메시와라였다. 이러한 이유로 말라카는 '말레이시아의 정신적 수도'라 일컫는다.

말라카는 바다 풍경과 더불어 강이 도심을 흐르고 있어 풍경이 아름답다. 말라카강 위를 떠가는 크루즈(Melaka River Cruise)를 타보면 말라카를 제대로 돌아볼 수 있다. 크루즈는 시내를 가로질러 역사적 건물, 오래된 창고, 성당, 마을, 숲 등을 지나는데 해설을 통해 강 주변 건물과 지역뿐만 아니라 주요 통로였던 강의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식민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네덜란드 광장

말라카 관광은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자. 대표 명소인 네덜란드 광장(Dutch Square Melaka)은 말라카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 같은 곳이다. 여러 침략국의 조형물과 건물이 전통적인 붉은색 건물로 둘러싸여 있다. 네덜란드 행정부가 남긴 스타더이스(The Stadthuys)와 그리스도 교회(Christ Church), 영국 식민지의 흔적인 빅토리아 여왕 분수(Queen Victoria's Fountain), 말라카의 중국 화교를 상징하는 탄벵스위 시계탑(Tan Beng Swee Clock Tower) 등이다. 시계탑은 중국 재벌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우선 붉은색 외관으로 유명한 스타더이스는 한때 네덜란드 총독과 관리들의 공식 거주지였다. 이 건물은 네덜란드 목공과 석조 기술이 반영된 훌륭한 건축물이며, 현재는 역사 및 민족학 박물관과 문학 박물관으로 쓰고 있다.

1645년 건축된 스타더이스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네덜란드 건물로 꼽힌다. 1753년 네덜란드인이 지은 그리스도 교회는 말라카에서 가장 상징적 건물 중 하나다. 붉은색 건물에 하얀 십자가, 종탑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교회 내부에는 황동 성경, 200년 된 수제 의자, 네덜란드 군인과 지역 주민을 기리는 명패 등이 전시돼 있다. 이 교회는 동남아시아에서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이며, 지금도 매주 예배가 진행된다. 네덜란드 광장에서 강을 건너면 존커 거리(Jonker Walk)가 시작된다. 오래된 주택과 상점 등 식민 시대의 건물에는 카페·펍·레스토랑 등이 들어서 있으며, 기념품 가게와 노점상뿐 아니라 수백 년 전의 물건을 판매하는 골동품 가게도 있다. 특히 이 거리는 매주 주말(금~일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야시장도 열려 사람들로 북적이며, 축제 시즌이 되면 밤에 가장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 주말마다 야시장이 열려 북적이는 존커 거리
2. 말라카 관광이 시작되는 네덜란드 광장
3.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인 그리스도 교회



1



2

포르투갈의 흔적이 남은 성 바오로 언덕

성 바오로 언덕 St. Paul's Hill으로도 부르는 부킷 플라카 Bukit Melaka는 도시와 해안선을 조망할 수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관광지일 뿐 아니라, 플라카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유적지다. 포르투갈이 플라카를 점령했을 때 바로 이곳에 요새를 짓고 에이 파모사 A' Famosa, 교회를 짓고 노사 센호라 Nosa Senhora로 이름 붙였다. 에이 파모사 요새는 현재 포르타 데 산티아고 Porta de Santiago라는 문만 남아 있다. 이 문은 1512년 포르투갈 제독 알폰수 드 알부케르크 Alfonso de Albuquerque가 지은 요새의 4개 문 중 하나다. 1641년 네덜란드가 도시를 침략한 뒤 5층짜리 망루는 파괴됐지만, 이후 요새의 외벽은 일부 복원됐다. 아치형 문 위 1670이라는 숫자는 네덜란드가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1811년 영국이 다시 파괴해 지금의 형태만 남았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유럽 건

축으로 꼽힌다.

노사 센호라는 현재 성 바울 교회 Gereja St. Paul라 부르는데, 에이 파모사와 마찬가지로 영국과 네덜란드의 공격으로 파괴되어 지금은 벽만 남아 있다. 교회 앞 동상은 성 프란치스쿠스 하비에르 St. Francus Javier의 동상이다. 하비에르는 인도·말레이시아·필리핀·일본 등 각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중국으로 가던 중 1552년에 사망했고, 그의 유해가 인도 고아 Goa로 옮겨가기 전 1553년까지 이곳에 묻혀 있었다고 한다.

성 바오로 언덕 기슭에는 플라카 술탄국 궁전 박물관 Melaka Sultanate Palace Museum도 있다. 이 박물관은 15세기 황제 만수르 샤 Sultan Mansur Shah의 궁전을 그대로 모방한 건물로, 말레이 왕조 실록에서 얻은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했다. 건물은 원래 구조에 따라 못을 쓰지 않고 지었다. 박물관에는 1,300개 이상의 역사적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 플라카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3

- 1 황제 만수르 샤의 궁전을 그대로 모방한 술탄국 궁전 박물관
- 2 포르투갈이 지었으나 네덜란드에 의해 파괴된 에이 파모사 요새
- 3 외벽만 남아 있는 성 바울 교회

모스크, 옛주택단지...
진짜 플라카를 만나는 명소

도심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보석같이 아름다운 명소들이 존재한다. 플라카 해상 모스크 Masjid Selat Melaka는 인공 섬인 플라우 플라카 Pulau Melaka에 자리 잡은 사원이다. 이 모스크는 바다 수위가 높을 때는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 플로팅 모스크 Floating Mosque라고 부르기도 한다. 황금색 돔과 우아한 아치형 통로 등 모더니즘 양식의 감각적 외관이 멀리서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는

더욱 아름답게 빛나니 꼭 해가 진 뒤에 가볼 것을 권한다.

아름다운 플라카 전통 주택이 모여 있는 캄퐁 모르텐 Kampung Morten은 동네 전체가 박물관 같은 곳이다. 플라카강이 S자로 굽이치는 부분에 위치해 있어 더욱 아름답다.

항 리 포의 우물 Hang Li Poh's Well은 1459년 황제 만수르 샤와 결혼한 중국 공주 항 리 포를 위해 지은 것으로, 가뭄 때조차 마르지 않은 우물로 유명하다. 1677년 네덜란드인들은 이 귀한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 튼튼한 벽을 지었다. 이곳에 동전을 던지는 사람은 플라카로

돌아온다는 전설이 있다.

항 투아 센터 Hang Tuah Centre는 전설적인 말레이 전사 항 투아의 삶을 기념하는 문화 역사 단지다. 이 단지에는 항 투아 박물관을 비롯해 그의 전사 친구인 항 제밧, 항 카스투리, 항 레키르, 항 레키우의 삶과 관련된 전시와 함께 각 전사의 거주지를 재현한 전통적인 말레이 주택도 있어 그 시대의 건축양식과 생활상도 엿볼 수 있다. ●

1. 물 위에 떠 있는 아름다운 사원 플라카 해상 모스크
2. 대가뭄 때도 절대 마르지 않았다는 항 리 포 우물
3. 전설적인 말레이 전사 항 투아를 기념하는 항 투아 센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플라카해협의 역사 도시, 플라카와 조지타운

플라카해협의 역사 도시인 플라카는 500년 이상 동안 플라카해협에서 동서 교역과 문화 교류를 하며 발전했다. 아시아와 유럽의 영향으로 정부 건물, 교회, 광장, 요새 등 유형·무형에 해당하는 다문화적 유산을 지니게 되었다. 플라카는 15세기에 플라카 왕국으로 시작해 16세기 초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통치 기간이 있었고, 당시 지은 건물이 남아 있어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또 하나의 말레이시아 교역 도시 조지타운은 18세기 말부터 영국이 지배했으며, 역시 다양한 건축물을 통해 그 흔적이 남아 있다. 플라카와 조지타운 두 도시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과 문화도시 경관을 간직하고 있다.

플라카로 가는 법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말레이시아 플라카까지 가는 직항 항공편은 없으며, 말레이시아의 대표 공항인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으로 입국 후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공항에서 직행 버스가 있다. 보통 쿠알라룸푸르와 함께 돌아보는데, 이 경우 쿠알라룸푸르 도심 남쪽에 위치한 TBS 버스 터미널에서 플라카로 가는 버스를 타면 된다. 시간은 쿠알라룸푸르 도심 기준 2시간 42분 정도 소요되며,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것이 좋다. 플라카 버스 터미널은 시내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또 한 번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야 한다.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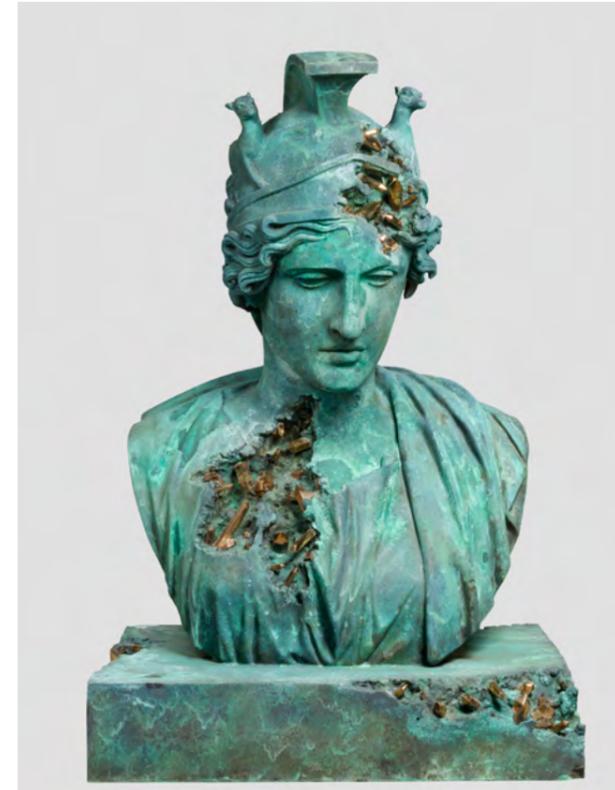


1,000년 후 북한산에서 만나는 아테나 여신상

인간의 문명만큼 시간 앞에 덧없는 게 또 있을까. 오늘을 미래의 유물로 만드는 시각 예술가 다니엘 아샴을 통해 3024년 미래의 서울을 만나본다.

Writer: 강은진 Photo: 롯데뮤지엄

'Athena Helmeted Found in Bukhansan 3024', acrylic on canvas, 157.5×172.7cm, 2024



'Bronze Eroded Bust of Rome Deified', bronze, polished stainless steel, 121.9×81.3×99.1cm, 2022



'Bronze Stainless Steel Venus ItalicaBust', bronze, stainless steel, wood, 50.8×50.8×33cm, 2021

발굴된 미래, 상상의 고고학

에디슨이 최초로 발명한 1호 축음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진품, 베를린장벽 등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한국이다. 오늘을 사는 동시대인에게도 '이게 왜 여기 있어?' 싶은 진귀한 것들이다. 하지만 1,000년 뒤 한국에서 에디슨이 처음 만든 축음기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품, 그리고 베를린장벽을 보게 되는 혹은 발굴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상상만으로도 기상천외한 전개가 여러 개 펼쳐진다. 현재도 1,000년 전 유물을 앞에 두고 '이건 뭐 하는 물건일까, 어디에 사용한 걸까' 고심하는 것이 많지 않은가.

이 흥미로운 상상을 현실로 보여주는 전시가 서울 롯데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10월 13일까지 진행되는 <다니엘 아샴: 서울 3024>전에서는 현대 문명과 유적 발굴을 재해석한 '상상의 고고학(Fictional Archaeology)'이

라는 독창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작품 250여 점을 선보인다.

세계 미술계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인기 있는 작가 중 한 명인 미국의 다니엘 아샴(Daniel Arsham)은 시간성, 역사성, 공간성의 경계를 초월해 조각·회화·건축·영화 등 장르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시각 예술가다. 그는 어린 시절 마이애미에서 겪은 허리케인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보고 인간의 무력감과 자연의 압도감, 그리고 문명의 덧없음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이때의 경험으로 초기작에는 자연과 인공, 시간의 경계가 사라진 형태의 조각과 회화가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2010년 남태평양 이스터섬을 방문해 유물 발굴 현장을 목격하고, 진실과 허구로 구성된 역사를 주제로 다양한 작업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때 다니엘 아샴은 과거의 유물을 통해 현시점의 역사를 추적하는 고고학자에게 영감받아 '상상의 고고학'이라는 개념을 착안했다.



'Rome Deified Found in Bukhansan 3024', acrylic on canvas. 157.5×172.7cm, 2024

31세기 서울을 만나다

서울의 1,000년 후 미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SF 장르의 포스트어포칼립스(Post-apocalypse) 세계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이번에 최초 공개되는 31세기 서울을 주제로 한 대형 회화 '3024년 북한산에서 발견된 헬멧을 쓴 아테나 여신(Athena Helmeted Found in Bukhansan 3024)'과 '3024년 북한산에서 발견된 신격화된 로마 조각상(Rome Deified Found in Bukhansan 3024)' 2점이다. 미래의 서울, 북한산에서 서양 고대 조각 유물을 발견한다는 허구적 스토리와 상황을 담아 한국 관객을 위한 서사를 제공한다. 달빛의 섬광 아래 서울 북한산을 배경으로 헬멧을 쓴 거대한 아테나 여신 조각상이 나타나며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와 함께 다니엘 아삼의 대표작 '발굴 현장(Excavation Site)'도 놓칠 수 없는 작품이다. 3024년 폐허가 된 서울의 발굴 현장에서 핸드폰, 신발, 카메라 같은 현대의 물건이 오래된 유물처럼 발굴된다. '상상의 고고학' 세계관이 집합된 작품으로,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구성된 설치 작업이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 폐허가 된 서울의 발굴 현장을 보여준다. 실제 발굴 현장처럼 구성된 이 공간에서 관람객은 마치 유적지를 탐험하듯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동시에 파손되고 풍화된 모습의 유물은 모든 것이 변하고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환기해주며, 현재의 삶과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처럼 다니엘 아삼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오브제를 미래의 시점에서 제시하며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무너뜨린다.

직관적이고 독창적 예술 세계

총 9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작가의 세계관 속 공존하는 여러 시대와 시간, 문화, 장르를 혼용하는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품을 재해석한 고대 조각상 <밀로의 비너스(Venus of Milo)>부터 시대를 대변하는 대중문화 아이콘 포켓몬, <미래 유물(Future Relic)> 오브제 시리즈 등 다니엘 아삼의 20여 년간 점철된 작업 세계관을 집약적으로 선보이는 전시다. 더불어 작가의 건축적 작품을 비롯한 초기작들과 제작한 영화·가구·패션·건축 등 세계적 브랜드

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시각예술 영역의 확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니엘 아삼이 창조한 세계 '상상의 고고학'은 오늘날 일상의 물건들이 미래에 유물로 발굴된 형태로 제시하며, 자신이 어느 시간 속에 머물고 있는지 모호하게 만든다. 허구와 현실이 뒤엉킨 이질적 공간에서 관람객은 다양한 시간성을 상상하게 될 것이다. 자칫 허황돼 보일 수 있는 주제지만, 그의 작품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작품을 뉴욕 현대미술관(MoMA)을 비롯한 수많은 권위 있는 미술관이 소장한 이 유다. ●

“

“당신이 도착하는 매 순간이 미래다. 당신은 이미 그곳에 도착했다.

(Each moment in which you arrive is the future. You've already arrived at it)

- 다니엘 아삼 -

”



'Fractured Idols XVII', acrylic on canvas. 191.8×176.5cm, 2024



'Fractured Idols XVIII', acrylic on canvas. 191.8×176.5cm, 2024



©Martin Dijkstra

1

한계를 뛰어넘는 도시 설계자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마스 Winy Maas

도시 혁신은 어떻게 이루는가? 그 답은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 마스와 그가 이끄는 건축가 그룹 MVRDV의 건축물에서 찾을 수 있다. 비니 마스는 건축가이자 조경가, 도시계획가로 단순히 멋진 건물만이 아닌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랜드마크를 선보여왔다.

Editor: 두경아 Photo: MVRDV 건축 스튜디오

- 1. 조경가이자 건축가, 도시계획가인 비니마스
- 2.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보이만스 반 뷔닝겐 미술관 수장고. 세계 최초의 개방형 수장고로 유명하다.
- 3.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쇼핑가에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 크리스탈 하우스. 유리 벽돌과 창틀로 마감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했다.

올해 2월 부산시는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 마스를 명예 자문 건축가로 위촉했다. 부산의 건축·도시 현안 사업의 발전 방향, 건축디자인 혁신과 관련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그는 지난 6월에 열린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탄소 중립 건축 도시 부산'에 대한 담론을 끌어내기도 했다.

비니 마스는 현시대 가장 인기 있는 건축가 중 한 명으로 꼽히지만, 그가 단순히 멋진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여서만은 아니다. 그는 건축가이면서 도시계획가이자 조경가다. 혁신적이고 실험적이며, 이론과 실무를 융합한 다양한 건물·도시·풍경의 설계와 디자인으로 찬사를 받아왔다. 그가 선보인 혁신적 건축물에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시장과 아파트를 결합한 '마르크트할',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전 원주택 '벨런싱 반', 자연을 담아낸 고층 아파트 '팔리'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역 고가도로 재생 프로젝트 '서울로7017'과 파라다이스시티 건물 클럽 외관을 설계했다.

마스는 RHSTL 포스코프 대학에서 조경을 공부했고, 델프트 공과대학에서 건축과 도시계획으로 학위를 받았다. 1993년 그는 야코프 판레이스(Jacob van Rijs), 나탈리 더프리스(Nathalie de Vries)와 의기투합해 자신들의 이름을 딴 MVRDV를 창립했고, 이를 통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MVRDV의 슬로건 역시 '우리는 도시와 풍경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다. 그는 현재 델프트 공과대학 건축학부에서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유형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 환경에 대한 사용자의 정의,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설계한 건물을 통해 보다 밀도 있고 친환경적이며,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철학이 반영된 건축 공로를 인정받아 마스는 2015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네덜란드 사자 훈장(Dutch Lion)을, 2011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Chevalier de la Légion d'honneur)을 받았다.



2

©Ossip van Duivenbode



3

©Daria Scagliola & Sijm Brakkee

현대건축의 전시장 마르크트할 Markthal

마르크트할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광장 시장과 아파트를 입체적으로 결합한 프로젝트다. 시장은 아치형 아파트 건물에 둘러싸여 있다. 건물은 접근성이 좋게 개방형으로 설계했지만, 변화하는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 앞뒤는 대형 유리로 마감했다. 유리는 테니스 라켓 제조 기술과 유사한 건설 시스템을 적용해 강철 케이블로 연결돼 있다. 유연성도 충분히 갖춰 폭풍우에도 견딜 수 있다고 한다. 40m 높이의 아치 지붕 아래 자리한 시장은 천장에 그려진 대형 벽화로 활기를 띤다. 예술가 아르노 쿠넨과 이리스 로스캄의 작품 '코르누코피아 Cornucopia'는 꽃과 곤충, 음식의 이미지로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를 형상화했다.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지만 해상도는 놀랍도록 선명하다. 이미

지는 픽사^{Pixar} 소프트웨어로 렌더링해 구멍이 뚫린 알루미늄 패널에 인쇄한 다음, 소음을 제어하기 위한 음향 패널에 부착해 설치한 것이다. 아치형 건물 1·2층은 레스토랑과 카페 및 상점 등 상업 시설이 있고, 나머지 층에는 24개의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102개 임대 아파트와 126개의 일반 아파트가 들어섰다. 모든 아파트는 니우어마스강과 유명 관광지인 라우렌스 개혁 교회^{Laurens Kerk}, 시장을 전망으로 한다. 자연 채광이 필요한 거실과 침실은 외부, 즉 시장 반대편에 자리 잡았고 주방·식당·보관실은 시장이 바라다보이는 쪽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소음과 냄새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 삼중 유리창이 설치됐다.

비니 마스의 대표작 '마르크트할'은 현대건축의 전시장으로 일컫는다.



©Ossip van Duivenbode



©Edmund Sumner

현대 예술 작품 같은 전원주택 밸런싱 바 Balancing Ba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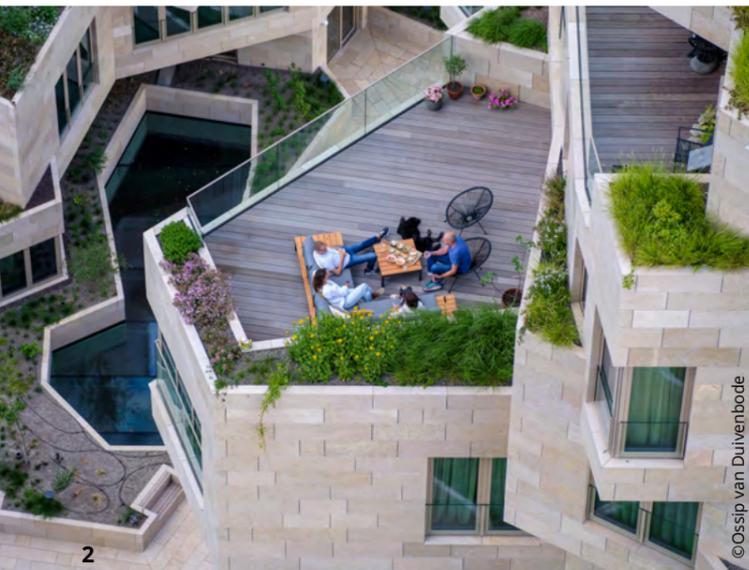
영국 서퍽^{Suffolk}주 토링턴^{Thorington}의 시골 마을에 건축된 밸런싱 바^{Balancing Barn}는 건축과 엔지니어링을 통한 그림 같은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하나의 현대 예술 작품이다. 300m 거리의 진입로를 따라가면 만나는 건물 정면은 반짝이는 금속으로 마감한 작은 주택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선을 옆으로 틀어보면, 예상치 못한 길이의 건물이 언덕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 건물의 총길이 30m 중 절반이 경사면 위에 위치한 형태다. 이 멋진 건물을 만든 이유는 자연에 대한 선행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땅에서는 자연을 경험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나무 높이에서 자연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것은, 이 구

조물이 중앙 콘크리트 중심에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땅에 닿은 부분은 공중에 뜬 부분보다 무거운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금속 마감은 주변 자연환경과 변화하는 계절을 반영한다. 내부로 들어서면 주방과 넓은 식당, 4개 침실로 이어지는데, 집 중앙에는 숨은 계단이 있어 아래에 있는 정원으로 나갈 수 있다. 건물 가장 안쪽에는 삼면이 창문으로 된 개방감 있는 넓은 거실이 있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도 높다. 단열성이 좋은 건축자재를 사용했고, 열회수 시스템으로 환기가 되며, 지열 히트 펌프로 난방이 된다.



©Edmund Sumner

1. 건물의 절반 가량이 경사면 위에 아슬아슬하게 떠 있다.
2.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 만나는 건물 정면은 마치 작은 주택처럼 보인다.



완벽히 계산된 불규칙 팔리 Valley

암스테르담 자위다스 ZuidAs 지구에서 눈에 띄는 건물이 있다. 67m, 81m, 100m 3개 건물이 하나로 연결돼 있는데, 건물의 반쯤은 외벽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규칙한 모양을 띤다. 그 사이사이에 식물이 자라고 있어 지질의 단면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2021년 '엠포리스 마천루 어워드 Emporis Skyscraper Awards'에서 세계 최고의 새로운 마천루로 선정된 팔리는 사무실, 상가, 문화시설, 아파트 등 다양한 시설이 한데 모인 주상 복합 건물이다. 4층과 5층의 타워 사이를 굽이굽이 흐르는 푸른 계곡은 외부에 있는 2개의 돌계단을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설계했다. 이 건물은 황량한 사무실 환경에 자연을 들이는 시도로 계획됐다.

건물은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다. 상업 지구에 해당하는 층에는 용도에 맞게 유리로 매끄럽게 마감했고, 그 위 아파트 층은 마치 유리블록이 무너져 내려 내부의 험준한 바위 표면이 드러난 듯 바위와 녹지가 가득해 보인다. 건물은 대부분 개방되어 있는데, 대로변에서 계곡까지 지그재그로 이어진 계단을 따라 마치 등산하듯 올라갈 수 있다.

200채의 아파트는 모든 가구에 충분한 채광과 전망이 보장되도록 맞춤형 디지털 도구를 통해 설계됐고, 바람·햇빛·온도·유지 관리 같은 요소를 고려해 건물의 각 위치에 적합한 식물을 선택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나무는 주로 저층에 있지만, 최상층은 작은 식물을 배치하는 식이다. 이 식물들은 자동 관개 시스템과 '외관 정원사'를 통해 유지 관리되도록 했다.

- 1_ 지질의 단면을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외벽 마감
- 2_ 200채의 아파트는 모든 가구에 충분한 채광과 전망이 보장되도록 맞춤형으로 설계했다.

미학적 가치를 지닌 공공도서관의 진화 톈진 빈하이 도서관 The Tianjin Binhai Library

비니 마스가 톈진 도시 설계 연구소 TUPDI와 협업해 선보인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독일의 건축 사무소 GMP의 12만㎡ 마스터플랜의 일부로 단지는 CBD, 구시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정부 구역의 접점이 되어 각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목적으로 세웠다.

도서관은 한가운데 빛이 나는 구형 강당이 자리하고, 그 주변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계단식 책장이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다. 책장은 구체 형태를 반영해 테라스형으로 만들었는데, 계단식으로 배열해 사람이 직접 책장 위로 올라가 책을 찾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책장은 또한 계단뿐 아니라 좌석 등의 기능을 하며, 외부 루버의 형태적 요소 역할도 맡고 있다. 또 건물 밖 입구 쪽에서 봤을 때 타원형 모양을 띠며, 건물 안쪽 구형 강당과 함께 마치 사람의 눈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5층으로 구성된 도서관은 지하층에 서비스 공간과 대형 자료실 등을 배치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했고, 1층은 소통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계획해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독서 공간 등을, 2·3층에는 독서실·라운지·서고 등을, 그 위층에는 회의실·사무실·컴퓨터·오디오 룸과 2개의 옥상 테라스를 배치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구상부터 완공까지 3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은 탓에 계획이 일부 변경되면서 도서관 꼭대기 층의 서고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구조다. 지금 보이는 꼭대기 층 책들은 알루미늄판에 프린트한 그림이다. ●

- 1_ 도서관은 한가운데 빛이 나는 구형 강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주변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계단식 책장이 감싸는 구조다.
- 2_ 책장은 계단식으로 배열해 사람이 직접 책장 위로 올라가 책을 찾아볼 수 있는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동서양의 만남, 화려함의 진수를 보여주다

Grand Lisboa Palace Resort Macau



동양의 라스베이거스로 불리는 마카오. 그곳에서 가장 핫한 리조트로 떠오른 곳이 있다.

바로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 리조트. 팔라초 베르사체 마카오, 더 칼 라거펠트 마카오 등 굵직한 패션 브랜드의 호텔까지 총 세 곳의 개성 있는 럭셔리 호텔을 보유한 세계 유일의 종합 리조트다.

Writer: 지인 Photo: 마카오 관광청,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 리조트



아름다운 정원을 지닌 압도적 스케일 Grand Lisboa Palace Macau

화려하고 거대한 리조트 규모로 유명한 마카오. 그중에서도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 마카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5성급 호텔로 인정받은 이곳은 리조트 내 총 1,900개 객실 중 1,300개 객실이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의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거대한 쇼핑몰 또한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7만5,000m²가 넘는 넓은 정원을 테마로 한 쇼핑몰에는 명품 부티크부터 NY8 뉴 야오한 같은 토털 라이프스타일 매장과 뷰티, 패션, 식음료 등 트렌디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어 쇼핑의 즐거움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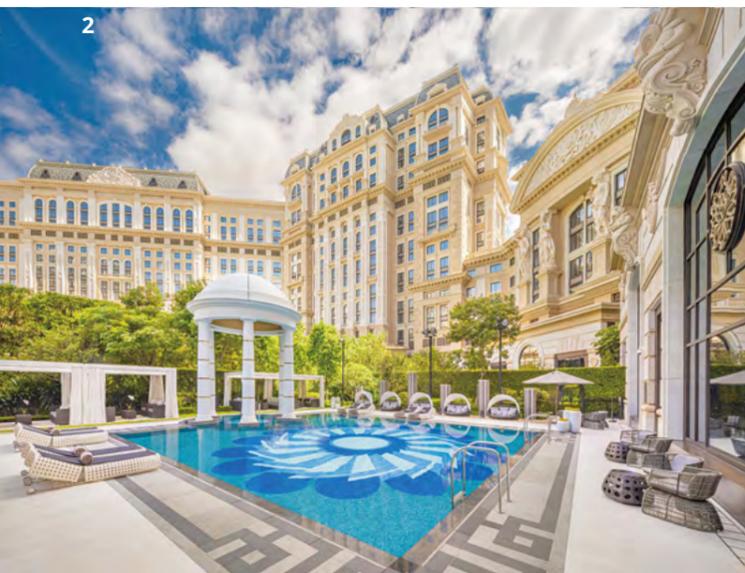
규모만 큰 것이 아니다.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의 가장 큰 매력은 화려하고 독특한 리조트 모습이다. 유럽 어딘가에 있을 법한 화려한 궁전을 연상시키는 건축디자인은 신고전주의부터 벨 에포크 시대의 주요 건물 요소와 전통적 중국 모티브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방문객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다. 시누아즈리에서 영감을 얻은 내부 인테리어는 용, 봉황, 연꽃 등 중국 전통 모티브를 곳곳에 활용해 마카오만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곳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바로 자르딴 세크레토 Jardim Secreto다. 화려한 돔을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유럽 스타일의 정원으로 잔디 미로, 우아한 파빌리언, 야외 수영장 등이 있어 시대를 초월한 공간으로의 완벽한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 1_ 3개의 럭셔리 호텔 브랜드가 모인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 리조트 전경
- 2_ 호텔의 플래그십 레스토랑 '팰리스 가든'의 프라이빗 룸
- 3_ 벽면에 마카오 아티스트의 작품으로 힘을 준 객실 내부
- 4_ 거대한 상층리어로 포인트를 준 호텔 로비



전 세계 유일한 칼 라거펠트 브랜드 호텔
The Karl Lagerfeld Mac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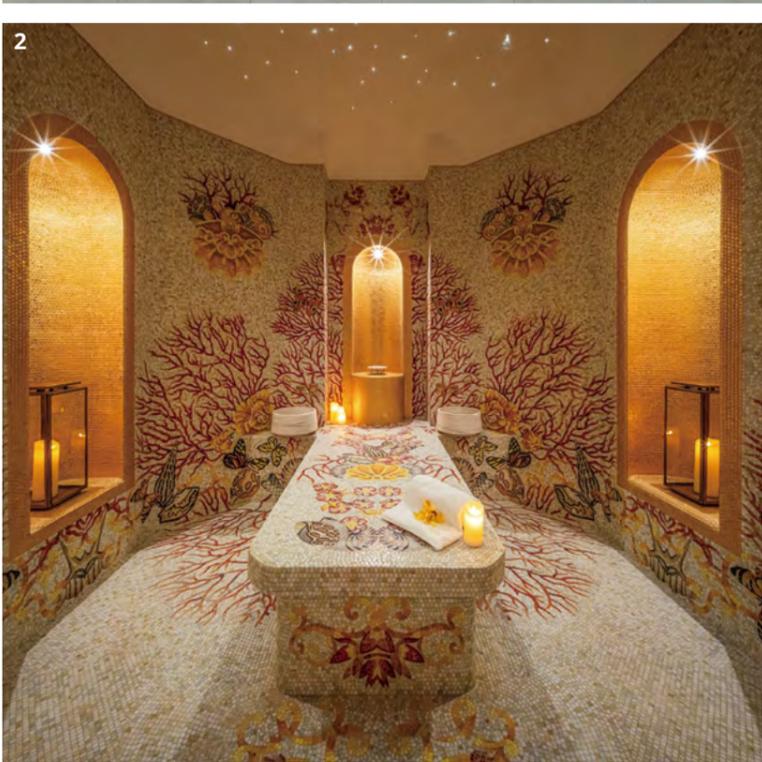
현대 패션 아이콘인 칼 라거펠트가 생전 마지막으로 집중한 프로젝트가 바로 더 칼 라거펠트 마카오다.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그의 디자인 세계가 궁금하다면 꼭 한번 방문해 봐야 할 곳이다. 그의 비전적 미학과 철학이 의류와 액세서리를 넘어 인테리어 디자인, 가구, 사진 등 호텔 라이프 스타일로 변신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리셉션 벽. 1,000개가 넘는 키로 덮인 벽에 라거펠트의 실루엣이 그려져 그의 호텔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호텔의 전체 콘셉트는 유럽과 중국의 컬래버레이션이다. 중화권이 지닌 문화적 요소를 유럽풍 호텔 디자인에 입혔다. 호텔 곳곳을 장식하는 중국식 도자기 꽃병과 블랙 바탕에 골드와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준 인테리어는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271개 객실 내 모든 가구는 그가 직접 디자인해 제작했고, 전통적인 중국 문에서 영감을 받은 원형 룸 디바이더와 시누아즈리에서 영감을 받은 벚꽃 벽 디자인은 서양의 아르 데코 요소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칼 라거펠트의 록시크 Rock Chic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 꼭 들러야 할 곳은 북라운지다. 4,000여 권의 장서로 채워진 더 북라운지는 라거펠트가 소유한 파리의 서점인 L7의 도서들로, 그가 직접 골라온 책이다. 여기에 머무는 동안은 이곳의 책을 객실로 빌려가 읽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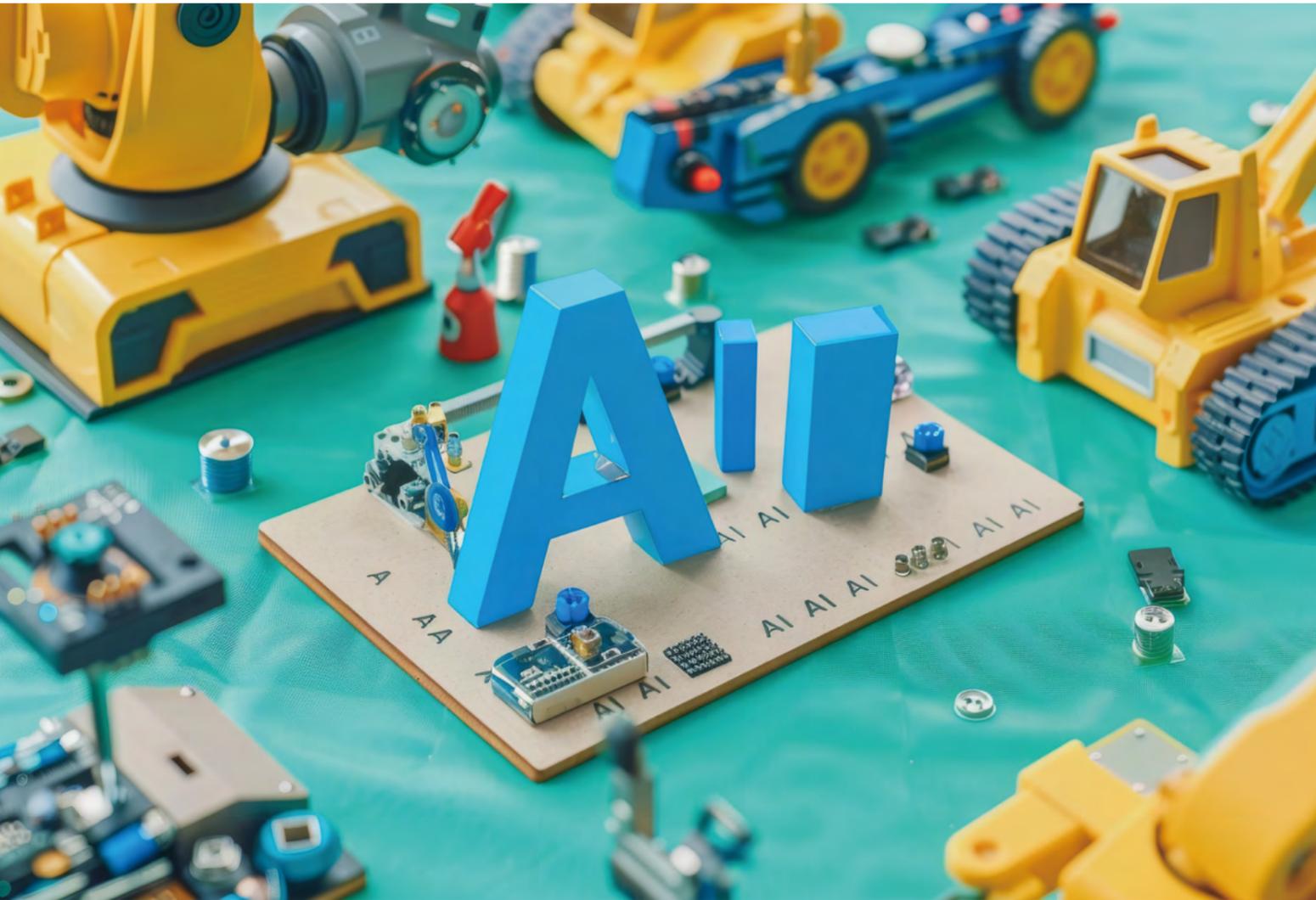
- 1 라거펠트의 록시크 분위기가 가장 잘 드러나는 아이코닉한 스위트 거실
- 2 이국적 분위기의 아웃도어 스위밍 풀
- 3 시선을 압도하는 더 칼 라거펠트 마카오 입구
- 4 4,000여 권의 장서가 구비된 더 북라운지

아시아 최초의 베르사체 브랜드 호텔
Palazzo Versace Macau

세계 곳곳에서 브랜드만의 확실한 정체성을 구현해내는 베르사체는 아시아 최초로 그의 호텔을 선보일 장소로 그랜드 리스보아 팰리스 리조트를 택했다. 화려함이라는 거대한 키워드로 통일된 두 호텔 브랜드의 만남은 보는 이로 하여금 진정한 화려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이탈리아의 팔라초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팔라초 베르사체 마카오의 로비에는 밀라노에 있는 베르사체 집을 그대로 그려놓은 모자이크 타일 벽과 바닥의 거대한 메두사 문장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8만 개가 넘는 조각으로 이뤄진 로비의 모자이크 타일은 밀라노 장인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한 것이다. 그 외에도 객실은 물론 호텔 곳곳을 장식한 모자이크 타일들은 이곳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임이 틀림없다. 모든 객실의 세면대와 수도꼭지·행어·배스로브·어메니티까지 하우스를 상징하는 메두사 머리, 기하학적인 그리스 모티브, 호화로운 바로코 프린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누가 봐도 베르사체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다. 호텔 하면 미식을 빼놓을 수 없다. 이탈리아 남부 지역 전통 요리를 선보이는 돈알폰소 1890 Don Alfonso 1890은 팜투 테이블 레스토랑으로, 마카오 내에서도 손꼽히는 파인 다이닝 중 하나다. 특히 이곳의 티라미수가 맛있다고 하니 방문한다면 잊지 말고 디저트까지 맛보고 오자. 🍷



- 1 팔라초 베르사체 마카오의 정체성을 강조한 로비
- 2 화려한 모자이크 타일로 마감한 스파 내부
- 3 야외 수영장 바닥의 모자이크 타일 역시 장인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
- 4 화려한 프린트를 자랑하는 베딩
- 5 임피리얼 스위트 내부



‘요즘 AI’와 노는 방법

“AI를 어떻게 활용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글쓰기’, ‘정보 찾기’, ‘번역’ 정도의 답변에 생각해내지 못했다면 최신 트렌드를 좀 더 배워야할 필요가 있다. ‘요즘 AI’는 아이들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가장 재미있는 놀이터다.

Writer: 황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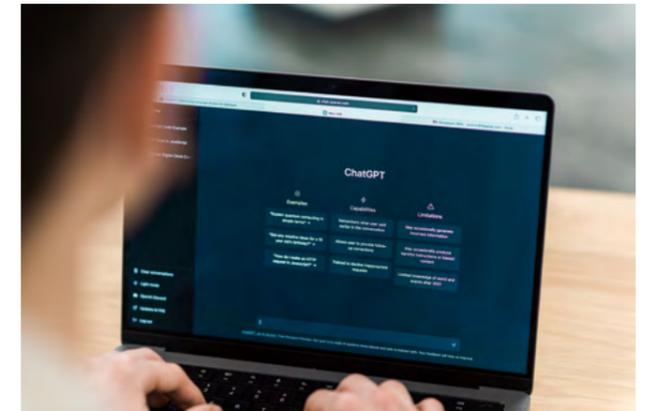


어느 날 인공지능이 다가왔다

2016년 3월 9일은 ‘인공지능(이하 AI)’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바짝 다가온 날이다. 알파고^{AlphaGo}라는 이름의 바둑두는 AI가 이세돌 9단과 다섯 번의 대국 끝에 네 번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는 당시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알파고 쇼크’로부터 6년이 흐른 2022년 말, 사람들은 또 다시 AI를 말하기 시작했다. OpenAI가 공개한 생성형 AI ChatGPT 때문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말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ChatGPT는 환각^{Hallucination}, 악용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우려에도 단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넷플릭스가 3.5년, 페이스북이 10개월, 인스타그램이 2.5개월가량 걸린 것에 비하면 실로 놀라운 속도다.

생성형 AI로 재미도 생성

AI의 등장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3단계로 나눈다면 충격-흥미-활용일 것이다. 알파고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Chat GPT의 능력과 가능성에 흥미를 느꼈고, 이제는 다양한 종류의 생성형 AI를 여러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혹자는 인간과 AI의 공존, AI가 불러올 미래 같은 것들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도 AI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공학자나 과학자의 영역이라고 여기던 기술이 일상에 스며들면서 생긴 변화가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같은 디지털 환경에 노출돼 자유자재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들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놀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에게 AI는 생경한 기술이 아니라 재미있는 장난감이다. 다양한 생성형 AI 플랫폼에서 시간을 보내며 즐기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며 함께 웃는다. 디지털 네이티브가 요즘 AI와 노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심심할 땐 AI와 대화하고 상황극

지난 5월 13일 GPT-4o가 공개됐다. OpenAI의 발표를 종합하면 GPT-4o는 기존 모델보다 더 빠르고 한국어도 잘하고 사람과 더 비슷해졌다. 처음 우리에게 공개됐을 때만 해도 GPT는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답변을 반복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제는 문맥을 파악하거나 숨어 있는 의미를 추론하고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도 능숙하다.

덕분에 가능해진 것이 있으니 바로 AI와의 상황극이다.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이 사진은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이 상황에서 나올 만한 말을 적어줘”라고 요청하면 GPT는 사진을 분석해 꽤 그럴싸한 답변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고양이 두 마리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양이들이 할 만한 말을 적어달라고 하면 사진에는 담기지 않은 정보까지 알아내 답변을 하는 식이다. 사람들은 이런 기능을 활

용해 사진을 기반으로 AI와 대화하고, 허무맹랑하거나 재미있는 답변을 유도해내기도 한다.

내가 대화하고 싶은 인물을 직접 창조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캐릭터.AI, Character.AI, ZETA 같은 인공지능 컴패니언 AI Companion 서비스를 활용한다. 게임,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이나 좋아하는 연예인을 가상으로 만들어 챗봇처럼 대화할 수 있는데, 인물의 성격·특성·언어 습관 등을 미리 설정한 후 TTS(Text to Speech, 음성합성) 기술로 목소리까지 입힐 수 있어 실제 인물과 대화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인공지능 컴패니언은 '덕질'하는 팬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좋다.

1. 스노우가 제공하는 AI 3D 필터
2, 3. AI가 그린 장화신은 고양이



#2 AI 필터로 프로필 만들고 SNS에 공유

달리 DALL-E와 미드저니 Midjourney 같은 이미지 생성 AI의 활용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다. 다수의 기업이 AI가 제작한 이미지를 기업 홍보나 디자인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대중도 낮은 해상도의 사진을 고화질로 바꾸거나, 관광지에서 필요 없는 피사체를 지우는 데 AI 편집 기능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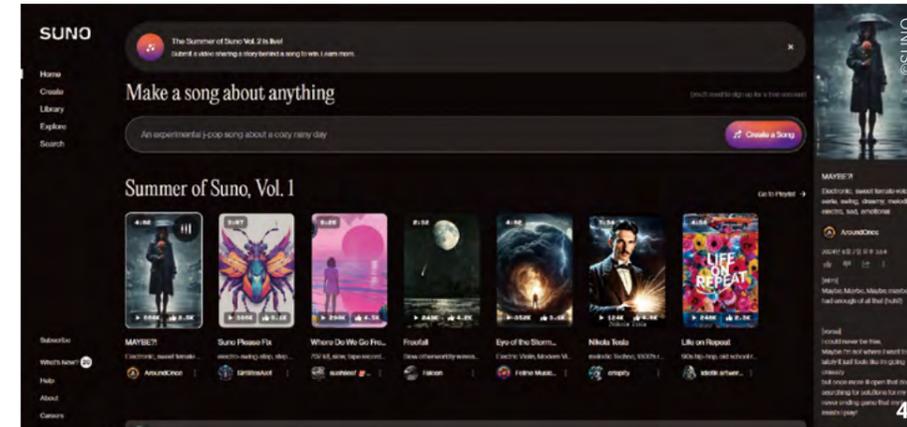
스마트폰 카메라 '스노우'는 원래 사진 보정 앱으로 유명했지만, 최근에는 AI 필터로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스노우가 제작한 앱 '에픽'은 작년 9월 사용자가 등록한 사진을 분석해 이어북 Year Book, 미국 고등학교 졸업 사진 스타일로 바꿀 수 있는 AI 필터 서비스를 내놨다. 유료 서비스임에도 출시하자마자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했으며, 연예인들과 기업 총수가 AI 필터를 적용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이 밖에도 사진을 변형해 착시 효과를 준 듯한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푸바오처럼 유명한 동물이나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으로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이렇게 제작한 콘텐츠를 SNS에 공개하는 채널도 하나둘 생겨났는데, 구독자들이 보고 싶은 이미지를 그려달라며 주제를 직접 제안하기도 한다.

#3 요즘 제일 뜨는 AI 작곡가와 협업

황정민의 '밤양갱', 임재범의 'Hype Boy', 프레디 머큐리가 부르는 '양화대교' 등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콘텐츠가 있으니 바로 AI 커버곡이다. 박명수, 저스틴 비버, 아이유, 조정석 등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를 학습한 AI가 기존 노래를 이들의 목소리로 바꾼 것인데, 저작권·실연권 침해 등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공개될 때마다 수백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음악 분야에서는 믹싱·편곡 등의 작업에 이미 AI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주목받는 것은 작사·작곡을 해주는 AI 수노 SUNO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간단한 설명을 입력하고 음악 스타일을 지정하면 단 몇 초 만에 수준급의 작사·작곡은 물론, AI 가수가 노래 부르고 앨범 표지



4. 작사·작곡에 노래까지 불러주는 AI 수노
5. 유튜버 하일광은 AI를 활용해 광복 소식을 듣고 좋아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영상을 제작했다.

이미지까지 제작해준다.

방송인 유병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자들과 함께 수노를 활용해 노래 만드는 과정을 공개했는데, 이처럼 생성형 AI로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 또한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양상이다.

#4 기획부터 편집까지 클릭 한번으로 영상 제작

AI를 활용한 영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화 <해리 포터>의 등장인물들이 나온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다. 디먼플라이박스 demonflyingfox라는 유튜버가 제작한 것으로, 영상 제작에 ChatGPT, 미드저니, 일레븐랩스(음성 변환 및 생성 프로그램), D-ID(AI 영상 제작 프로그램) 등 4개의 AI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이처럼 여러 개의 AI를 사용해 영상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

만, 최근에는 간단한 텍스트나 이미지만으로도 영상을 제작해주는 AI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OpenAI가 공개한 소라 Sora와 5월 공개된 구글 답마인드의 비오 Veo 같은 동영상 생성 AI는 디테일이나 시각 효과 등에서 실제 카메라로 촬영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영상 생성 AI는 이미지나 텍스트 생성 AI에 비해 아직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편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X에 공유한 AI 패션쇼 영상이 이슈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유튜버가 광복 소식을 전해 듣고 활짝 웃는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AI로 복원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다. AI로 만든 숏폼 영상도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 만큼 영상 생성 AI의 활용 영역도 점차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1

다시 돌아온 새 천년 감성

최근 유행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새 천년 감성'이다. 패션, 아이템, 음악, 음식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시간을 뛰어넘어 젊은 세대의 마음을 빼앗은 최근 문화 흐름을 소개한다.

Writer: 황진아



2



3

1020 사로잡은 아네모이아

긴 생머리, 오버사이즈 셔츠와 핑퍼짐한 바지를 입은 소녀들. 마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로 회귀한 듯한 모습의 걸 그룹 뉴진스^{New Jeans}의 등장은 그야말로 센세이션했다. 데뷔하기 전 선공개한 곡 'Ditto'는 1990년대 학교 풍경을 고스란히 재현하며 그 시절을 직접 경험한 세대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Gen Z(1990년대 중후반~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에게는 아네모이아^{Anemoia}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시인 존 콰케의 책 <슬픔에 이름 붙이기>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인 아네모이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절에 대해 향수를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요즘 1020을 주축으로 한 Gen Z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아네모이아다. 부모, 더 멀리는 조부모가 즐겼을 법한 시절의 문화와 아이템을 동경하고 즐겨 찾는 이들에게는 '옛날 감성'이 촌스럽고 올드한 것이 아니라, 핫하고 힙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복고 주도하는 요즘 아이들

"아, 나의 사랑은 남쪽 바람을 타고 달려가요." 1980년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가수 마쓰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가 별안간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됐다. 지난 6월 말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팬 미팅에서 뉴진스의 멤버 하나가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다. 일본 버블 경제 시절을 대표하는 '푸른 산호초'가 올려 퍼지자 현장에서는 큰 함성이 터져나왔다. 과거 일본을 그리워하는 4050의 향수를 자극했고, 젊은 세대에게는 말로만 듣던 황금기의 문화가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는 복고 열풍의 시작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에서 2012년 방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의 인기가 뜨거워지면서 덩달아 복고 마케팅 열풍이 불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복고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시절'의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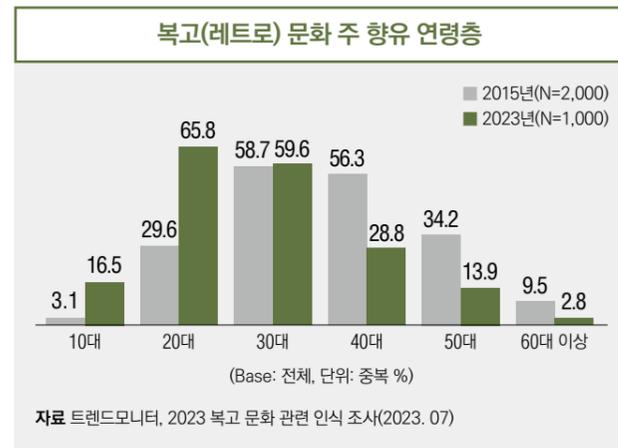
4

- 1. 1990년대 감성이 Gen Z의 취향을 저격했다.
- 2. 젊은이들의 필수품이 된 키링
- 3. '보리차 담는 병'으로 친숙하던 멜몬트 오렌지 주스
- 4. 새 천년 감성을 재현한 걸 그룹 뉴진스

지난해 시장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복고 문화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의 복고 문화가 주로 3040에 의해 주도된 것과 달리 저연령층에서 스스로가 복고 문화를 즐기는 주류 세대라고 인식할 정도로 현재의 복고는 2030에 의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잇힌 것들의 역주행

최근 가장 핫한 트렌드는 단연 '쇠맛'이다. 혀끝에 닿는 금



속의 강렬하고 짜릿한 느낌을 표현하는 쇠맛은 걸 그룹에 스팟가 금속성 사운드, 미래주의, 초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강렬한 스타일의 콘셉트를 들고 나오면서 본격 유행하기 시작했다. 쇠맛은 대개 사이버 펑크·메탈·실버·스팽글 같은 소재들로 표현되는데, 1999년 가수 이정현의 사이버 여전사나 엄정화의 테크노 콘셉트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쇠맛의 유행은 어디선가 본 듯한 데자뷔를 느끼게 한다.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분야에서 1990년대로의 회귀는 이뿐만 아니다. 1990년대에 흔히 볼 수 있던 몸에 달라붙는 짧은 상의와 평퍼짐한 하의는 이제 기본 아이템이고, 최근에는 그 시절 힙합 가수를 연상케 하는 버뮤다팬츠(무릎을 덮는 기장의 넓은 반바지)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드라마 <프렌즈>나 우리나라의 인기 시트콤 <남자 셋 여자 셋>의 패션이 다시 유행하는 셈이다.

키링과 디지털카메라도 1990년대로의 회귀를 대표하는 아이템이다. 가방이나 스마트폰에 달고 다니는 키링은 이제 Gen Z 세대의 소지품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필수품이 되었고, 투명한 재질의 6공 다이어리나 볼테 안경 같은 과거의 아이템을 찾는 이도 많아졌다. 화질도 안 좋고 사용하기 불편한 디지털카메라 역시 최근에는 없어서 못 파



1 쇠맛 트렌드를 유행시킨 에스파
2 할매니얼이 떠오르며 양갱 같은 디저트가 급부상했다.
3 시골에서 휴식하는 촌강스가 최근 여행 트렌드로 떠올랐다.

는 아이템이다. 화소가 200~300만에 불과하지만, 특유의 흐릿한 초점과 색감이 오히려 '그 시절 감성'을 제대로 자극한다는 이유로 인기가 높다.

할매·할배 스타일도 오히려 좋아

마카롱이나 쿠키 같은 서양식 디저트에 밀려 있던 전통 음식도 '할매니얼(할매와 '밀레니얼 세대'의 합성어) 감성을 입고 부상했다. 흑임자, 쑥, 오미자, 팔 같은 식재료로 만든 디저트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 여기에 가수 비비가 부른 노래 '밤양갱'이 인기를 얻으며 양갱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떡·약과·주약·정과 같은 음식이 요즘 입맛에 맞게 변형되고 재해석되면서 찾는 이가 많다. 핫한 음식의 척도로 여기는 편의점 PB 상품들도 카스텔라, 맘모스빵 등 할매·할배 디저트로 채워지고 있다.

1990년대 보리차 물병으로 자주 쓰던 텔몬트 유리병 주스, 처음 출시됐을 때의 패키지를 그대로 재현한 칠성사이다와 오뚜기 카레·짜장, 알커피가 들어 있는 테이스터스 초이스의 레트로 패키지 등 예스러움이 한껏 묻어나는 기획 상품들도 출시됐는데, 이런 상품을 굿즈처럼 소장하려는 이도 적지 않다.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시간을 보내는 호캉스가 대세였던 여행 트렌드 또한 시골에서 보내는 '촌강스'로 흐름이 변했다. 몸빼 바지를 입고 밀짚모자를 쓴 채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며 논명·밭명(논과 밭을 보면서 명 때리기)을 하는 인증샷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한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촌강스' 검색량은 2021년 6월과 비교해 15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런 흐름에 따라 촌강스를 할 수 있는 숙소만 전문으로 연결하는 플랫폼도 생겨났다. 이러한 현상의 바탕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시골에서 생활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며 시골 생활에 로망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다 해외여행이나 호텔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성, 남들과는 다른 색다른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됐다. 물가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점도 촌강스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다.

추억팔이와는 다른 재해석과 융합

영국의 복장사학자 제임스 레이버는 <취향과 패션>에서 "유행이 1년 지나면 촌스럽고 20년 지나면 우스꽝스럽지만, 30년 지나면 흥미롭고 70년 지나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이른바 '레이버의 법칙(Laver's Law)'이다.

새 천년 시절의 감성과 문화가 젊은 세대에게 먹히는 이유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낡고 오래된 감성을 분리하고 해체해 나만의 색을 입힐 수 있는 자유로움과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것들의 재해석과 융합이 개성을 중시하는 Gen Z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다. ●



1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클래식 공연장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호하는 곳이 크게 갈린다. 소리의 우열을 따지며 국내 3대장, 5대장 설왕설래해도 서울 예술의전당은 반드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국내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은 자타 공인 '전통의 강자'다. 대부분의 한국 클래식 애호가들이 처음으로 가는 곳이자 가장 많이 가는 곳, 그리고 높은 확률로 생애 마지막으로 방문하게 될 곳이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1988년 문을 연 이래 지금까지 클래식 공연장의 대명사로 통하며, 클래식 연주자들에게 꿈의 무대로 여겨진다. 아무리 음향이 좋은 신규 공연장이 개관을 해도, 예술의전당의 소리가 표준이자 기준이 되는 이유다.

오직 클래식 음악 연주만을 위해 지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은 어떤 대곡이라도 거뜬히 받아내기로 정평이 나 있다. 소리가 머무는 잔향 시간이 2.1초로 소리를 가장 멀리, 풍부하면서도 부드럽게 전달하는 울림이 뛰어나다. 너무 건조하지도, 너무 울리지도 않아 음의 왜곡이 없다. 이른바 '깔' 만한 요소가 없는 안정적인 음향을 들려주는 것이다. 다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은 아주 크고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있어 음압이 상대적으로 낮다. 소리가 퍼지고 홀에 꽂 차지 않아 소규모 실내악이나 독주회보다는 오케스트라 공연이 보다 최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규모 2,505석

스타일 빈야드 Vineyard(홀 중심에 무대가 있고 객석이 경사진 형태로 에워싸는 모양)에 가까운 부채꼴



2

제2의 악기, 국내 최고 클래식 공연장 BEST 5

클래식 음악은 유독 공연장을 '탄다'. 같은 공연장이라도 오케스트라마다 소리가 다르듯, 같은 오케스트라여도 다른 공연장에서 연주하면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그렇다면 국내 최고 클래식 공연장은 어디일까?

Writer: 강은진 Photo: 각 공연장 제공

1.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2.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3. 아트센터인천 외관
4. 대구콘서트하우스 전경
5. 부천아트센터 외관



3



4



5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

대한민국의 남쪽 끝에는 클래식 연주자는 물론, 애호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클래식 공연장의 '성지'로 꼽는 곳이 있다. 바로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이다. 독일의 유력 매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은 내부가 나무로 된 고전적 슈박스Shoebbox형 공연장으로, 음향이 탁월하며 바로 앞에는 바다가 있고 멋 들어진 지붕 모양은 장 누벨이 루체른에 지은 콘서트홀과 닮았다. 세세한 부분은 잘츠부르크와 비슷하다. 지역민은 외지인과 구별되고, 연주자와 관객은 서울·도쿄·홍콩 또는 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평했다. 슈박스형이란 단어처럼 신발 상자란 뜻으로, 직육면체 모양의 가장 전통적인 공연장이다. 영화관에서 관객이 스크린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것처럼 무대와 객석이 마주 보는 형태로, 무대의 소리를 객석에 일방향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마치 상자 안에서 소리가 퍼져 울리듯이 풍부한 반사음이 구현된다는 게 장점이다.

아주 작은 소리의 섬세한 울림까지, 깊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모든 악기 소리를 공연장 구석구석까지 자연스럽게 전

달해 관객에게 압도적인 청각적 몰입감을 선사한다. 자리도 타지 않는다. 1층에서는 압도적으로 정밀한 고해상도 음향을 경험할 수 있고, 2층에서는 자연스러운 '리버브 Reverb' 효과가 더해진 음향적 입체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꼭대기 층에서는 1층과 2층의 장점이 결합된 자연스러운 음향을 경험할 수 있다.

그야말로 단점이 없는 공연장이다 보니 연주자들 사이에서는 '녹음의 전당'으로도 일컫는다. 이곳에서 음반을 녹음한 음악가는 피아니스트 백건우·김대진·손민수·임윤찬, 첼리스트 양성원·김민지·이정란·박유신,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한수진, 성악가 연광철 등 명단도 화려하다. 그러나 의외로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처음 녹음한 것은 한국의 연주자가 아닌 영국의 명바이올리니스트 대니얼 호프다. 2015년 공연 후 음향에 반한 그가 1년 후 세계적 음반사 도이치그라모폰 제작팀과 통영을 찾은 것이다. 이처럼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의 음향은 최상의 어쿠스틱을 자랑하는 세계적 콘서트홀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주소 경남 통영시 큰밭개1길 38 통영국제음악당(도남동1)
규모 1,309석
스타일 슈박스

부천아트센터

지난 2023년 5월 개관한 부천아트센터는 K-클래식 부흥기를 대표하는 공연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야말로 '신상' 공연장이지만, 명성만큼은 이미 유서 깊은 공연장 못지않다. 음향 좋은 곳으로는 언제나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서울과 인천이라는 거대 도시 사이의 애매한 지역적 핸디캡조차 가볍게 극복하며 '음향의 전당'이라는 찬사를 받는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소리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클래식 전용 홀 중 유일하게 파이프오르간을 갖춘 부천아트센터는 세계 최초로 설치한 이중 반사판을 통해 각각의 장르에 맞는 음향과 예술성을 구현할 수 있어 '한국 공연자의 전환점'으로 평가받

는다. 객석이 무대를 감싸는 빈야드 형태와 풍부한 반사 음향을 추구하기 위한 직사각 형태의 슈박스형을 동시에 구현했다. 관객은 음악에 둘러싸이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연주자의 의도대로 음악적 강약이 전달되고, 청중과 연주자 사이 시각적 친밀감을 잃지 않도록 객석의 배치와 객석 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특히, 소음과 진동을 최대한 차단해 클래식 음악의 어쿠스틱이 최대한 발현되는 공연장 환경을 자랑한다. 바닥과 벽 천장을 이중 슬래브로 설계하고, 수천 개의 방진 마운트와 방진 매트를 설치해 소리를 촘촘히 잡아낸 수준은 가히 완벽을 넘어 광기에 가깝다.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65(중동)
규모 1,445석
스타일 빈야드, 슈박스 절충형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인천을 대표하는 공연 시설이자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아트센터인천은 객석 수 기준 서울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에 이어 단일 공연장으로는 국내 세 번째 규모다. 4층 규모의 1,727석 공연장은 더 좋은 소리를 얻기 위해 최고급 공법을 총동원하다시피 했다. 물결무늬 천장에 벽체는 거리에 따라 두께와 재질이 다르고, 객석마다 등받이 높이까지 서로 다르다. 어떤 좌석에 앉아도 직접음과 반사음의 조화가 뛰어나다. 콘서트홀은 관객이 오케스트라를 둘러싸는 빈야드와 직사각 형태로 풍부한 반사음이 구현되는 슈박스형 각각의 장점을 혼합했다. 이 같은 정밀한 소음·진동 차단 시스템으로 관객과의 거리는 좁히고 음악적 몰입감을 한껏 높인다.

지휘자가 지휘하는 손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특화된 건축 미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내부의 빛을 활용해 일관성 있는 경관이 구현되는 미디어 파사드 시스템까지 장착했다. 콘서트홀은 바다를 형상화해 수려한 공간 디자인을 구현해 아트센터인천이 공연장 중 가장 예쁘다고 손꼽는 이도 많다. 통영처럼 바다도 끼고 있어 공연 후 여운까지 공연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관객들에겐 최고 공연장이다.

주소 인천시연수구아트센터대로 222
규모 1,727석
스타일 빈야드, 슈박스 절충형



대구콘서트하우스

지난해 대구시민회관에서 클래식 전용 홀로 리모델링한 후 10주년을 맞은 대구콘서트하우스의 아담한 홀은 어느 자리에서도 소리가 균일하고 선명해 '소리 좋은 공연장'으로 입소문 났다. 재개관 초기만 해도 이전엔 들리지 않던 미세한 소리까지 들리고, 긴 잔향과 풍성한 울림이 깊은 감동을 준다는 관객과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 집중하기 힘들다는 관객으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이후 마감재로 사용한 목재가 점점 마르기 시작하면서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하자 하나둘 호평이 늘면서 이제는 제법 마니아층까지 보유한 공연장으로 이름이 높다.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은 슈박스 형태로 거리가 짧아 반사음의 음향이 매우 우수하다. 특히 무대 면과 객석 사이가 인접해 관람객의 몰입감이 높고, 시청각적 생동감 및 소리를 한결 고르게 느낄 수 있다. 콘서트 전문 공연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음향 시스템은 오케스트라 연주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우수한 녹음 시스템이 함께 설계된 것으로 알려진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본다면 특정 악기 소리가 크게 들리는 앞쪽보다 중간이나 뒤쪽 좌석이 좋다. ●

주소 대구시 중구 태평로 141
규모 1,284석
스타일 슈박스

삶에서 경험은 가장 큰 스승이며, 헤안의 원천입니다.
지금껏 겪어온 다양한 경험과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경험 속에서
현재 삶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해봅니다.

SEMIOR+



노년, 나의 행복을 찾는 시간

우리 사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년층에 대한 시선이 부양과 돌봄에서 경제와 사회 활동의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젊은 노인을 뜻하는 신조어 ‘올드 Young Old, YOLD’는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건강한 노년,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때다.

Writer. 황진아 Photo. 프리픽

고령화 앞둔 우리 사회의 화두

영화 <업>은 할아버지 칼과 꼬마 리셀의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에서 칼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괴팍한 노인이었지만, 우연히 집으로 찾아온 리셀과 모험을 떠나면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우리에게 필요한 화두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질렀다.

고령화 추세는 당분간 더 가속할 전망이다. 올해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1964~1974 출생자)가 본격적으로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돌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8.6%(약 954만 명)인데, 이는 단일 세대 중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은퇴 연령 진입을 완료한 1차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 705만 명) 세대에 이어 2차 베이비 부머까지 약 1,600만 명이 노년이라는 생의 주기에 들어서고 있다.

늙기엔 아직 젊은 우리

노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고정적 이미지가 있다. 자주 아프고 돌봄과 부양이 필요하며 의존적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부정적 존재로 낙인찍고, 이들을 무능력한 존재로 바라보게 한다.

대부분의 법과 제도에서 노인의 기준은 만 65세로 설정하고 있는데, 2024년을 기준으로 1959년생이 중년과 노년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1959년생을 떠올려보면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거리가 멀다. 여전히 일하고 있으며 취미 생활과 운동도, 사회 활동도 가장 적극적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차 베이비 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를 보면, 2차 베이비 부머는 경제성장률이 본격화된 시기에 성장해 이전 세대보다 근로 의지가



영화 <업>의 포스터

강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 편이다. IT 활용도 또한 높고 소득이나 자산 여건도 양호하며, 사회·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도 크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 ‘세계경제 대전망’에서 젊은이 못지않은 경제력과 적극성으로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 노인을 ‘올드’라 명했는데, 이들은 적극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5~10년 어리게 인식한다는 특징이 있다. 올드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액티브 시니어, OPAL(Old People with Active Lives), 골든 그레이(Golden Grey),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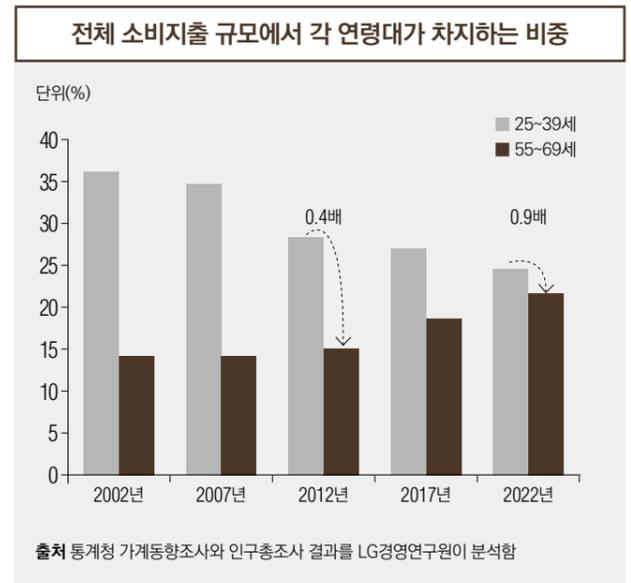


중년, 다이내믹 시니어, 솔드 Smart Old, SOLD 등 젊은 노인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는 노인이 약하고 의존적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활동적이며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수가 된 시니어 프렌들리

올드 세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용어 '올디록스 Yoldilocks'는 젊은 노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한마디로 설명한다. 생산과 소비 활동에 적극적인 올드가 이상적인 경제 상황, 즉 골디록스 Goldilocks로 이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소비를 주도한 젊은 세대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50대 이상 노년층의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식품·운동·여행·패션·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50·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소비계의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타깃으로 한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시니어 프렌들리 Senior Friendly, 에이지리스 Ageless 같은 마케팅 용어를 내세운 상품 개발도 활발하다. 대표적으로는 케어 푸드 Care Food가 있다. 특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노인이나 환자를 대상으



1) LG경영연구원, '향후 30년간 확대될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 파워', 2023

로 한 맞춤형 식품을 말하는 케어 푸드는 고령 친화 식단, 저염 식단, 저당 식단, 고단백 식단은 물론 연하곤란이나 소화 장애를 돕는 기능성 제품까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여행 분야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있는 고령층을 공략하는 프리미엄·테마 상품을 기획해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시니어 뷰티 케어 산업도 블루 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업계도 높은 수익성보다 정기적 수익을 원하는 고령층을 위한 자산 관리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고령층 사로잡기에 나섰다. 자기 계발과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교육 서비스도 있다. 한 학습지 회사는 지난 5월 5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학습지를 론칭했다. 시니어를 위한 두뇌 트레이닝과 외국어 학습이 가능한데, 한 달 만에 학습지 구독 1만 건을 달성했다.

'나이' 아닌 '나'에 집중하는 삶

건강한 몸과 마음, 자기 관리, 인간관계, 사회참여, 정기적 소득. 이는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갖춰야

할 항목으로 꼽히는 것들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나이에 따른 통과의례가 있다고 여긴다. 10대에는 학업, 20대는 취업, 30대는 결혼과 출산 등이다. 이러한 통념에 따라 숨가쁘게 살아온 이들에게는 은퇴 후 올드 또는 액티브 시니어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또 다른 조건이 생긴 것 같아 숨이 턱막힐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의 통념보다 스스로 원하는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찾는 것이다. 영화 <업>에서 집에서만 생활하던 노인 칼에게 변화를 준 것은 아내 엘리가 떠나기 전 남긴 메모였다. 칼과 엘리가 함께한 삶은 언뜻 평범했으나 그것은 대단한 모험이기도 했다. "이제 새로운 모험을 즐겨보라"는 엘리의 유언은 칼이 집 밖으로 나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삶을 본격적으로 즐기는 계기가 된다.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자산이나 건강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올드의 요건을 살펴보면 그 속에 숨은 의미는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찾고, 그것에 집중하기'다. 치열하게 살아온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노년을 잠시 보류해둔 '나의 행복'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보자. ●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자.

뜻밖의 만남 가을

올가을은 이름난 명소에서 벗어나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가을 정취 즐기기 좋은 곳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기대하지 않고 간 장소에서 경험하는 놀라움과 감동이 있을 테니 말이다.

Editor: 정상미 Photo: <SRT 매거진>, 한경 DB

국내 유일의 메타세콰이아숲 장태산자연휴양림

고(故) 임창봉 선생이 야산을 매입해 1972년부터 20여 년간 아들과 함께 2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그 후 거인의 나라에 있을 법한 거대한 나무 메타세콰이아가 장태산에 숲을 이루게 됐고, 1991년에는 전국 최초의 민간 자연휴양림으로 이름을 떨쳤다. 외환 위기 때 재정 어려움을 겪던 선생은 대전시에 휴양림을 넘겼다. 온몸과 마음을 바쳐

가꾼 이곳이 시민의 것이 되길 바란 것이다. 리모델링을 마친 후 2006년 재개장한 장태산자연휴양림에서는 야영장, 수련장 등의 시설과 높다란 메타세콰이아 숲길을 건너는 출렁다리, 숲속 어드벤처 등 다채로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국적 느낌의 메타세콰이아 경관을 즐기고 싶다면 이곳만 한 곳도 없다.

📍 대전시 서구 장안로 461

☎ 042-270-7883, www.jangtaesan.or.kr





영남 알프스의 베이스캠프 국립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

산행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영남 알프스 9봉을 익히 알고 있을 터. 울산 가지산, 운문산, 천황산, 신불산, 영축산, 고현산, 간월산 외 경주 문복산, 밀양 재약산을 가리키는데, 해발 1,000m에 달하는 이 산군이 유럽의 알프스처럼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나 이 모든 아름다움을 뒤로하고 등산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국립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으로 가보자. 울주의 신불산은 해발 1,159m로 정상을 향하지 않더라도 고즈넉한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숲길이 잘 조성돼 있다. 휴양림 주차장을 기점으로 완만한 산길을 오르면 우람한 크기의 기암괴석이 계곡을 메우고, 그 위로 큰 나무들이 그

림자를 드리우는 풍경이 속속 나타난다. 흙길, 자갈길, 나무 텍길을 골고루 밟으며 15분 남짓 걸었을까? 아득한 절벽 위로 폭포가 쏟아진다. 아래로는 등그런 소가 생겼는데 낙엽이 가득 쌓여 마치 물처럼 보인다. “아, 아” 말하는 소리가 “아~! 아~!” 하고 울리니 자연이 만든 무대처럼도 보인다. 고개를 끝까지 치켜올려야 시작부터 끝을 볼 수 있는 파래소폭포는 높이가 15m에 들레 100m, 깊이 5~7m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아 예부터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폭포를 오르며 파래소의 뜻이 궁금했는데, 바라는 대로 이뤄지는(또는 비가 내린) 곳을 의미하는 ‘파래소’에서 ‘파래소’가 되었다고.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청수골길 175
☎ 1588-3250, www.forestrip.go.kr

숲이 전하는 위로 국립김천치유의숲

힐링이 간절한 이라면 국립김천치유의숲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소백산맥의 명산 중 하나인 수도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푸르름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트레킹, 피톤치드 호흡, 명상 등 숲을 만끽하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곳의 백미는 관리 사무소에서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펼쳐지는 드넓은 자작나무 숲. 사계절 변함없이 곳곳한 수천 그루의 자작나무 사이를 걷다 보면 비로소 차분히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나무를 쓰다듬으

며 나의 마음도 어루만지게 된다. 그 외에도 자생식물원, 숲속 교실 등 규모가 크고 둘러볼 것이 많아 이곳을 시간을 넉넉히 잡고 가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식물원은 건물도 아니라 자생식물 쪽에 표지판을 세워둔 곳이고, 숲속 교실 역시 큰 돌에 삼삼오오 앉아 숲 해설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다. 방문자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숲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방문은 자연에겐 귀찮은 일일 터. 고요한 숲을 내어준 산에게 고마워할 일이다.

📍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길 1237-89
☎ 054-435-3413





아름다운 풍경 속에 깃든 충혼 직지사 & 사명대사공원

경북 김천에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인물의 지극한 충혼이 깃들어 있다. 바로 조선의 승려이자 승병장이었던 사명대사다. 진리를 찾아 수행하던 승려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망설이지 않고 전장으로 향했다. 전쟁을 일으키고 무자비한 만행을 저지르는 왜군과 맞서 백성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호국 불교 정신에 따른 결단이었다.

사명대사공원은 이러한 호국 애민 정신을 기리는 곳이다. 사명대사가 출가한 뒤 승려로서 수행하고 정진한 직지사와 잇닿아 있어 그 의미를 더한다. 한옥에서 포근한 휴식을 취하는 숙소 건강문화원,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한 시립박물관, 향긋한 차를 음미할 수 있는 솔향다원 등을 갖춰 공원만 제대로 둘러봐도 오감으로 김천을 느낄 수 있



다. 공원의 랜드마크인 평화의탑은 밤에도 은은하게 빛을 낸다. 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시절에도 꺼뜨릴 수 없었던 사명대사의 충혼처럼. 특히 가을은 사명대사공원이 빛나는 계절이다. 곳곳에 은빛 억새가 하늘거리고, 김천 제1의 명산으로 꼽히는 황악산이 한껏 울긋불긋 물들어 눈을 즐겁게 한다. 직지사는 길목마다 국화로 수놓아 은은한 가을 향기를 느낄 수 있다. 특히 대웅전에서 비로전으로 향하는 길까지 이어지는 단풍나무 길은 황홀한 붉은빛 터널을 만들어낸다.

직지사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 054-429-1700, www.jikjisa.or.kr

사명대사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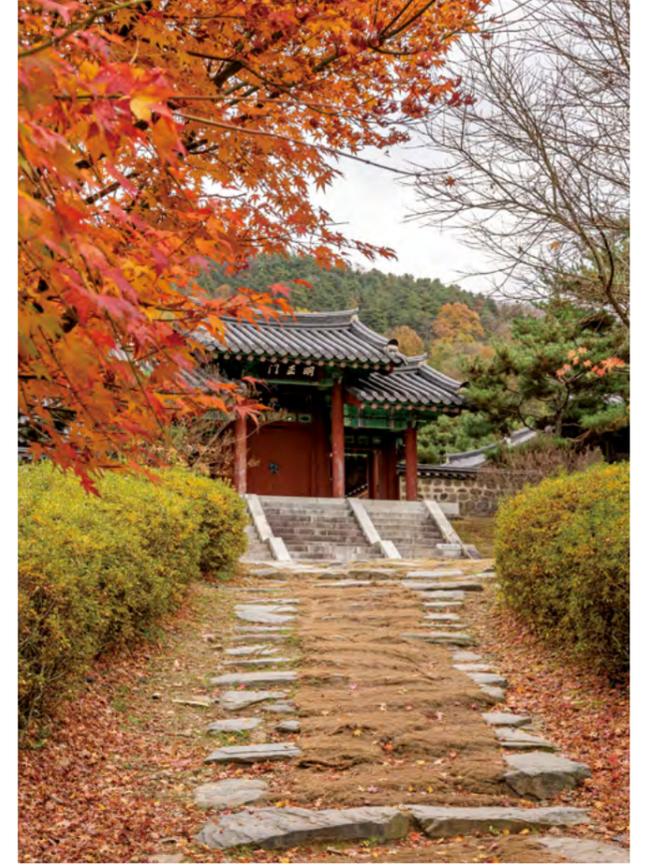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4-3
☎ 054-421-1557



버즘나무 가로수 터널 상소동산림욕장

해가 짧아져 한낮의 햇살이 더없이 소중한 계절. 상소동산림욕장에도 계절의 색이 짙게 배었다. 붉은 옷 같아 입은 가로수 아래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돌탑이 상소동산림욕장을 상징한다. 이 돌탑은 이덕상 선생이 1965년부터 7년간 쌓아 만든 것으로, 1971년 대홍수에는 돌탑들이 물막이 역할을 해 큰 재난을 피했다고 한다. 산림욕장 인근에는 1만1,000m²(약 3,328평) 규모의 오토캠핑장을 비롯해 물놀이장, 돌탑광장, 산책로, 야생초화원, 팔각정 등 시설물이 자리해 가족 단위로 찾기에 그 만이다.

📍 대전시 동구 산내로 714
☎ 042-273-4174



숨가쁜 일상의 작은 쉼터 우암사적공원

대전 도심에 있는 우암사적공원은 붉은 단풍, 노란 은행잎이 전각의 단청에 그림처럼 어우러질 때면 잠시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일으킨다. 그도 그럴 것이 규모가 엄청나다. 조선 후기 대유학자 우암 송시열이 학문을 닦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으로, 약 5만2,000m²(1만6,000평) 대지에 장관각·전시관·서원 등 16동의 건물을 복원했다. 특히 입구에 있는 기국정은 건축미가 뛰어나고 인정받았고, 송시열 문집인 <송자대전> 목판 등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어 자연뿐 아니라 의미 있는 볼거리도 즐길 수 있다. ●

📍 대전시 동구 충정로 53
☎ 042-673-9286

사우스스프링스CC

아름다운 풍광 속에 숨은 벙커 108개

소나무 숲과 어우러진 자연 그대로의 멋을 살린 사우스스프링스CC.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홀마다 배치된 벙커다. 불교의 108번뇌를 연상케 하는 108개 벙커가 골퍼의 평정심을 흐트러뜨리며 승부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Writer: 조수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Photo: 사우스스프링스CC

대한민국 시그너처 홀

대한민국에는 540개가 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골프장에는 오너와 설계자가 가장 공들여 조성한 골프장의 '얼굴'이라 할 홀이 있습니다. 적게는 18홀, 많게는 81홀 가운데 가장 멋진 딱 한 홀, 바로 '시그너처 홀'입니다. 한국경제신문과 함께 명문 골프장의 명품 홀을 소개합니다.

워터 해저드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물이 없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애써 못 본 척 마인드 컨트롤을 해봐도 큼지막한 입을 벌리고 있는 연못에 눈이 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그린에 물에 둘러싸인 아일랜드 홀이라면 불안감은 더 커진다. 아름답기까지 하면 샷에 집중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경기 이천의 명문 골프장 사우스스프링스CC의 시그너처 홀은 레이크 8번 홀이다. 멋스럽기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아일랜드 파 3홀로, 청초록색 연못 위에 떠 있는 그린의 양쪽 옆구리와 뒤에는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자리 잡고 있다. 핀은 중핀, 화이트 티에서 140m, 레드에서는 95m 거리다. 하지만 10m 내리막을 감안해야 한다. 핀보다 길게

공이 떨어지면 그린 뒤 해저드로 흘러가고, 짧으면 그린 앞에 있는 2개 벙커에 빠지기 십상이다. '백팔번뇌'로 불리는 사우스스프링스의 108개 벙커 중 2개다. 자칫 홈런을 치면 그린 반대편 물에 들어가는 만큼 스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티 샷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번뇌가 찾아왔다.

자연의 멋을 살린 골프장

사우스스프링스CC는 원래 휘닉스스프링스CC란 이름의 고급 회원제 골프장으로 2009년 개장했다. 2016년 보광그룹에서 형제 회사인 BGF그룹으로 주인이 바뀌면서 대중제로 전환했다. 그리고 2021년 사모펀드 센트로이드 PE를 새 주인으로 맞았다. 인수 가격은 당시 국내 골프장 거래 최고가인 홀당 96억5,000만원이었다. 주인이 두 번 바뀌고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했지만, 명문 골프장으로서의 명성은 잃지 않았다.

이 골프장이 왜 명문인지는 페어웨이 잔디를 밟는 순간 알 수 있다. 짙고 뽀뽀한 잔디가 뻑뻑하게 식재된 덕분에 쇼트 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치는 느낌이 든다. 에버랜드(삼성물산 리조트 부문)가 한국 골프장 환경에 맞게 개발한 잔디인 '안양증지'다. 안양CC, 가평베네스트CC, 안성베네스트CC 등 삼성 계열 골프장에 깔린 바로 그 잔디다. 잎이 넓은 한국 잔디와 좁은 양잔디의 장점을 합친 것. 삼성의 사돈 그룹인 보광도 이 골프장을 만들 때 안양증지를 도입했다. 지금도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에 소속된 잔디환경연구소가 시즌마다 코스를 방문해 잔디 상태를 관리한다. 코스는 원래 있던 자연을 그대로 살렸다. 어디를 둘러봐도 억지로 산을 깎거나 흙을 쌓아 올린 법면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린에서 페어웨이를 돌아보면 자연 그대로의 곡선미를 느낄 수 있다. 원형 녹지 보전율이 60.8%에 달한다. 개장한 지 20여 년밖에 안 됐는데도 오래된 골프장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코스 전반에 걸쳐 심어놓은 1200여 그루의 적송^{赤松}은 골프장의 기품을 더한다.

아름다운 풍광에 지형도 완만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코스



레이크 5번 펀드 전경

다. 전장은 길고 그린은 빠르다. 거리와 정확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 불교의 백팔번뇌에서 착안한 108개 병커는 공이 떨어질 만한 곳마다 어김없이 놓여 있다. 그래서 사우스스프링스CC를 경험한 아마추어 골퍼 중 상당수는 “오늘 친 샷의 절반이 병커샷”이란 후기를 남긴다.

모래만큼이나 물도 많다. 레이크 코스에는 워터 해저드가 무려 7개나 있다. 동반한 캐디는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부터 “평소 스코어보다 10타 정도 더 나온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치라”며 “백팔번뇌를 내려놓지 못하면, 해탈하지 않으면 이 골프장을 즐길 수 없다”고 조언했다.

프로에게도 사우스스프링스CC는 만만찮은 코스였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E1 채리티 오픈이 2020년부터 3년간 이곳에서 열렸는데, 매해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2021년 지한솔이 18언더파라는 화려한 플레이로 우승한 반면, 2022년 대회에서는 이소영, 정윤지, 지한솔, 하민송이 나란히 최종 합계 8언더파를 쳐 5차 연장전 끝에 정윤지가 우승했다. 코스 세팅에 따라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코스인 셈이다.



사우스스프링스CC의 시그너처 홀, 레이크 8번 홀

한옥 게스트 하우스 ‘파지오 하우스’

이 골프장의 또 다른 명물은 게스트 하우스 ‘파지오 하우스’다. 코스 설계자 짐 파지오의 이름을 딴 건물로, 국내 골프장이 설계자 이름을 내세우는 건 국내에선 매우 드문 일이다. 그만큼 사우스스프링스CC가 명문 코스로 인정받는데 파지오의 역할이 컸다는 의미다.

짐 파지오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골프장 설계의 명문 집안 출신이다. 그의 삼촌인 조지 파지오는 1940~1950년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를 뒀던 유명 골퍼 선수다. 선수가 된 후 골프 코스 설계에 뛰어들었다. 짐 파지오는 삼촌 영향을 받아 19세인 1980년부터 골프 코스 설계 일을 했다. 그가 설계한 가장 유명한 골프장은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이다. 그는 몇 년 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는 골프장 설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말마다 현장을 방문해 드라마틱한 무언가를 주문했다”며 “골프장에 좋은 주문은 아니었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그의 동생 톰 파지오는 형보다 더 유명하다. <골프 다이제스트>가 선정한 미국 200대 골프장 중 46개를 설계한 덕분에 ‘골프장 설계의 피카소’로 일컫는다. 지난 10월 CJ컵이 열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지랜드의 콩가리 골프장도 그의 작품이다. CJ는 3년 연속 톰 파지오가 설계한 코스에서 CJ컵을 열었다. 2020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새도 크리크, 지난해 라스베이거스의 더 서밋 클럽 등도 톰 파지오의 손을 거쳤다.

백팔번뇌를 내려놓고 해탈의 플레이

8번 아이언을 꺼내 들었다. 물 앞에서 위축될 걸 생각하고 조금 넉넉하게 클럽을 잡았다. 그러면서도 “물은 없다, 물은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세뇌했다.

핀은 그린의 정중앙, 티 그라운드에서 보기에 약간 오른쪽이다. 핀을 직접 노렸다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그린 중앙까지 파고든 오른쪽 병커에 빠질 게 뻔했다. 그래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심호흡을 한 뒤 다리에 힘을 주고 골반을 돌렸다. 찰싹, 기분 좋은 손맛과 함께 공이 똑바로 날아갔다. 거리도 잘 맞았다. 딱 바라본 대로 날아간 공을 보며 뒤늦게 ‘이럴 줄 알았으면 핀을 곧바로 노릴걸’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다. 공은 그린 왼쪽 끝에 떨어졌다. 아슬아슬한 ‘온 그린’, 15m 오르막 퍼팅이 남았다.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갤러리가 많답니다.” 퍼팅 라인을 읽는데 함께 라운드한 송대영 사우스스프링스CC 이사가 뒤쪽 언덕을 가리켰다. 그곳엔 20여 개의 석상(石像)이 그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골프장엔 이런 석상이 230여 개나 있다. 보광그룹이 골프장을 지을 때 지관(地官)의 권유로 나쁜 기운을 막는 석상을 코스 이곳저곳에 배치했다고 한다. ‘석상 갤러리’들의 응원을 받으며 버디 퍼트를 시도했지만, 홀 1m 앞에서 멈췄다. 동반자들의 너그러운 컨시더를 받고 파로 마무리. 티 샷하기 전의 번뇌는 씻은 듯이 사라졌다.

오는 10월에는 2년 만에 KLPGA 투어가 이곳에서 열린



마운틴 6번 홀



한옥 스타일의 게스트 하우스, 파지오 하우스

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상상인·한경TV 와우넷 오픈에는 박현경, 윤이나, 이예원 등 올 시즌 가장 뜨거운 선수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총상금 12억원이 걸린 메이저급 대회로, 올 시즌 대상·상금왕 경쟁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

Information

규모 18홀 7226yd(6607m²)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64
그린피 주중 20만원/ 주말 27만원
(요일, 시간대에 따라 상이함)
문의 031-630-7000
홈페이지 www.ssc.co.kr



백현범 프로의 원포인트레슨 치킨 윙을 방지하는 핵심 요소, 올바른 오른팔 자세

골프에서 스윙은 가장 기초 동작이자 좋은 스코어를 내는 첫걸음이 된다. 스윙 시 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거나 힘이 없다면 지금 당장 오른팔의 움직임을 체크해보자. 어드레스 시 오른팔에 조금만 신경을 써줘도 샷을 망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Writer: 백현범

골프에서 스윙 동작만큼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어드레스다. 그렇다면 올바른 어드레스가 어떻게 스윙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스윙을 완성하는 데 오른팔과 오른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골퍼가 어드레스할 때 그립에는 신경 써서 집중하는 반면, 팔의 자세와 모양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손과 마찬가지로 어드레스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팔 모양이다. 팔 모양에 따라 발생하는 작은 차이가 스윙의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레슨에서는 좋은 스윙을 방해하는 요소인 치킨 윙을 방지하기 위해 오른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어드레스에서 왼팔과 오른팔: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

먼저 어드레스를 살펴보자. 많은 골퍼가 어드레스할 때 왼팔과 오른팔의 위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특히 왼팔의 경우, 오금이 백스윙의 진행 방향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경 쓰지 않고 단순히 팔을 뻗으려는 자세를 잡아 보면 오금이 정면을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스윙 시 팔이 외회전되고, 이로 인해 그립이 워크 그립으로 변형되기 쉽다. 워크 그립이 되면 스윙의 파



백현범 프로의 스윙 강의
백현범 프로의 정확한 스윙 비법을
배워보세요.



오른팔에 신경 쓰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세

위와 정확도 역시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백스윙 방향을 염두에 두고 팔을 배치하는 것이 올바른 어드레스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오른팔로 넘어가 살펴보자. 오른팔 역할은 왼팔보다 더욱 중요하다. 많은 골퍼가 힘을 빼기 위해 오금을 타깃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스윙 시 자연스럽게 오른팔이 바깥으로 벌어져 팔꿈치가 열리게 된다. 그로 인해 흔히 말하는 치킨 윙이 발생할 수 있다. 치킨 윙이란 임팩트 이후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져 클럽이 덮이는 현상을 말하는데, 치킨 윙이 되면 정확한 스윙을 방해하고 거리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오른팔의 올바른 사용법, 거드랑이를 조이고 오금을 정면으로

오른팔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이렇게 바르게 사용했을 경우 매우 효과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드레스할 때 오른팔의 거드랑이를 살짝 조이고 팔꿈치의 오금이 정면을 바라보도록 해보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오른팔이 몸과 일직선을 이루며,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힌지 동작도 만들기가 편해진다.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고 몸과 함께 움직이면 스윙의 궤도가 안정적이면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다.



셋업 시 오른팔의 올바른 자세



바르게 셋업되었을 때 팔 모양



오른팔을 올바른 자세로 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백스윙 동작

또한 임팩트 시 오른팔의 올바른 위치는 스윙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도와준다. 팔꿈치가 몸에 가까이 유지되면 클럽 헤드가 정확한 경로로 움직이고, 이는 공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팔꿈치가 바깥으로 벌어지면 스쿠핑 Scooping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임팩트 순간에 손목이 풀리면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현상으로, 공이 뜨면서 거리가 줄어들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치킨 윙 방지, 올바른 오른팔 자세로 비거리와 정확도 향상

골프에서 치킨 윙을 방지하는 것은 거리와 정확도를 모두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올바른 오른팔 자세는 거드랑이를 살짝 조이고 팔꿈치를 타깃 방향으로 향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면 자연스러운 스윙 궤도를 만들어내고, 스윙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이는 공이 떠오르지 않고 목표한 방향으로 정확하게 날아가게 한다.

이처럼 왼팔뿐 아니라 오른팔 모양에 따른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만일 스윙 시 공이 원하는 만큼 날아가지 않고 일관성 있는 플레이가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오른팔의 움직임을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치킨 윙을 방지하고 더 나은 스윙을 위해 오른팔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프 스윙 시 지켜야 할 숨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요약 Point

- 오른팔의 올바른 자세 유지**
거드랑이를 살짝 조이고, 오른팔 오금을 정면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스윙 시 팔꿈치가 벌어져 발생하는 치킨 윙을 방지할 수 있다.
- 치킨 윙 방지**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오른팔 자세를 유지하면 스윙의 궤도가 안정되며, 공의 비거리와 정확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스윙의 일관성**
오른팔의 올바른 사용은 임팩트 시 클럽 헤드를 올바른 경로로 이끌어주어 스쿠핑 현상을 예방하고, 스윙의 일관성을 높여준다.

한식 디저트의 정석 전통과 현대가 만난 요즘 한과

세대를 막론하고 한식 디저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번 추석에는 직접 만든 한과로 손님 접대는 물론 색다른 명절 분위기를 내보는 것이 어떨까.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한과 레시피를 소개한다.

Editor: 지연 Cooperation. <반찬등숙, 할머니 말씀대로 한과 하는 이야기>(강신혜 지음, 청주부역)



TIP

약과는 반죽이 좋고 잘 튀겼어도 집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밀가루 맛이 난다. 맛있는 약과는 잘라서 단면을 보면 속까지 집청 시럽이 촉촉하게 스며 있다. 집청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죽이 질지 않아야 한다. 반죽이 질면 틀에서 모양 만들기는 쉬워도 튀긴 약과가 단단해져 집청 시럽이 잘 스며들지 않는다. 집청되는 속도 역시 기온에 따라 달라진다.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오래 걸리므로 시럽 농도를 조절해 묽게 만들고 더 오랫동안 집청한다.

전통 꽃약과

조선 시대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약과는 우리나라 최고급 과자이자 대단한 사치 음식 중 하나로 여겼다. 하지만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약과는 더 이상 특별한 날에만 먹는 옛 음식이 아니다. 현대의 입맛과 니즈에 맞춰 재료도 고급화되고 모양과 맛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재료

반죽 밀가루 200g, 참기름 30g, 소금 2g,
계핏가루 1g, 후춧가루 약간
반죽 시럽 꿀 50g, 청주 32g, 생강즙 10g
집청 시럽 조청 180g, 꿀 120g, 물 70g, 생강 8g,
통계피 4g
튀김 기름 적당량

만들기

1 재료 준비하기

- ① 소금은 블렌더에 갈거나 칼날로 밀어 곱게 만든다.
- ② 반죽용 생강은 곱게 갈아 고운체에 발쳐 줌을 받는다.
- ③ 꿀과 청주, 생강즙을 한데 섞어 반죽용 시럽을 만든다.
- ④ 집청용 생강은 편으로 납작하게 썬다.

2 반죽하기

- ① 밀가루에 소금을 섞어 고운체에 내린다.
- ② 체에 내린 밀가루에 후춧가루와 계핏가루를 섞은 뒤 참기름을 넣어 손바닥으로 고루 비빈다. 밀가루를 참기름으로 코팅하는 느낌이다.
- ③ 참기름 먹인 밀가루를 중간 체에 내린다.
- ④ 밀가루에 반죽용 시럽을 3~4회에 나누어 넣으며 주걱이나 스크래퍼로 자르듯 반죽한다. 반죽 덩어리가 쌀알 크기가 될 때까지 자른다.
- ⑤ 날가루가 보이지 않으면 양손으로 뭉쳐 한 덩어리로 만든다. 이때 치대지 않는다.
- ⑥ 랩이나 젖은 면포로 싸서 20분 이상

휴지한다.

3 집청 시럽 만들기

- ① 집청 시럽 재료를 모두 냄비에 담고 중간 불에 올려 끓으면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더 끓인다.
- ② 완성된 집청 시럽을 중탕해서 따뜻하게 보관한다.

4 약과 틀로 모양 만들기

- ① 약과 틀에 기름을 바르거나 랩을 깐다. 실리콘 약과 틀은 그냥 쓴다.
- ② 휴지한 반죽을 같은 크기로 나누어 둥글게 뭉친다. 약과 틀에 박았을 때 가운데는 조금 얇고 가장자리는 꼭 차는 분량이 좋다.
- ③ 약과 틀에 반죽을 넣고 가운데부터 살살 누르면서 펴 가장자리까지 채운다. 엄지손가락으로 꼭꼭 박는다.
- ④ 꼬챙이로 반죽에 구멍을 4~6개 낸다.
- ⑤ 틀에서 꺼내 20분 정도 휴지한다.

5 기름에 튀기기

- ① 140℃ 기름에 약과 반죽을 넣고 뒤집어가며 앞뒤를 골고루 익힌다.
- ② 갈색이 나면 꺼내어 기름기를 뺀다. 남은 열이 있어 색이 더 진해지므로 원하는 색보다 약간 더 밝은색일 때 꺼낸다.

6 집청하기

- ① 튀긴 약과는 따뜻할 때 집청 시럽에 담근다.
- ② 속까지 집청 시럽이 잘 배어들면 망에 발쳐 시럽을 뺀다.



꽃같은 요화과

잘 알려지지 않은 한과로 요화과·오화삭·요화산자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는데, 여뀌꽃을 닮아 요화라 불렀다고 한다. 다양한 색깔의 반죽을 가늘고 길게 만들어 여러 견과류를 고물로 붙였다. 붉은색 고물을 묻히면 진짜 여뀌꽃을 보는 듯하다.



재료

반죽 밀가루 200g, 소금 2g, 물 90g

색 재료 치자 1조각, 녹차 가루 2g, 백련초 가루 1g

집청 시럽 설탕 100g, 물엿 20g, 물 50g

고물 튀밥 20g, 피스타치오 20g, 땅콩 20g,

해바라기씨 20g, 지치 기름 4g

튀김 기름 적당량

만들기

1 준비하기

- ① 시판 튀밥은 분쇄기에 곱게 갈아 굵은체에 내려 세건반(細乾飯)을 만든다.
- ② 세건반을 반으로 나누어 반은 백세건반을, 나머지 반에는 지치 기름을 조금 넣고 버무려 붉은 세건반을 만든다.
- ③ 피스타치오와 땅콩, 해바라기씨는 각각 다져 굵은체에 걸러 가루를 제거한다.
- ④ 치자 한 조각을 물 50g에 담가 색을 우려낸다.

2 반죽하기

- ① 밀가루에 소금을 섞고 중간 체에 내려 50g씩 넛으로 나눈다.
- ② 밀가루 50g을 물로만 되직하게 반죽해 랩이나 젖은 면포로 싸서 20분간 휴지한다.
- ③ 나머지 밀가루에 각각 녹차 가루와 치자 물, 백련초 가루를 넣어 녹색·노란색·붉은색 반죽을 만들어 랩이나 젖은 면포로 싸서 20분간 휴지한다.

3 성형하기

- ① 각각의 반죽을 말랑하게 치대 3mm 두께로 평평하게 민다.

② 민 반죽을 12cm로 길게 썬 다음 다시 3mm로 가늘게 썬다.

③ 가늘게 썬 것을 손으로 굴려 몸 전체는 둥글게 하고 끝은 가늘게 만든다.

4 튀기기

- ① 120℃ 기름에 넣어 속까지 익도록 천천히 튀긴다.
- ② 기름에서 꺼내 기름기를 뺀다.

5 고물 묻히기

- ① 설탕과 물엿을 섞고 물은 조금만 넣어 아주 진한 집청 시럽을 만든다. 튀긴 요화과의 한쪽 끝을 4cm 정도만 남기고 시럽을 묻힌다.
- ② 큰 그릇에 세건반을 넣고 요화과를 넣어 까불러 고루 묻힌다.
- ③ 여분의 고물은 털어낸다.
- ④ 다진 피스타치오와 땅콩, 해바라기씨, 홍세반도 같은 방법으로 묻힌다.

TIP

된 반죽을 길게 자르고 살살 굴려 모서리를 둥글게 해서 튀긴다. 가늘기 때문에 좀 딱딱해도 푹푹 부러뜨려가며 먹을 수 있다. 전통 조리서에서는 반죽 재료를 메밀가루나 밀가루에 찹쌀가루를 섞어 쓰기도 했다.

주악 아닌 주악 같은 주악

요즘 유행하는 도넛같이 생긴 주악은 전통 주악은 아니다. 전통 주악은 지방마다 달랐는데, 청주가 배경인 <반찬등속>에 나온 주악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팔 소를 넣고 송편보다 작고 납작하게 빚어 기름에 지진다. 여기 소개하는 방법은 요즘 유행하는 주악 만드는 법이다.



재료

반죽 습식 찹쌀가루 160g, 밀가루 32g, 설탕 20g, 소금 2g, 생막걸리 40g, 뜨거운 물 20g
 집청 시럽 설탕 90g, 물엿 50g, 물 100g, 통계피 4g, 유자청 건지 10g
 장식 호박씨 20개

만들기

1 반죽하기

- ① 습식 찹쌀가루와 밀가루를 각각 중간 체에 내린다. 여기에 소금과 설탕을 넣고 한데 섞는다.
- ② 섞은 가루에 뜨거운 물과 생막걸리를 넣고 익반죽한다. 말랑할 정도로 치댄다.
- ③ 치댄 반죽을 랩이나 젖은 면포로 싸서 20분 이상 휴지한다.

2 성형하기

- ① 휴지한 반죽을 다시 치댄다.
- ② 18g씩 소분해서 경단처럼 둥글게 빚은 다음 손바닥으로 눌러서 1cm 두께로 둥글납작하게 만든다.
- ③ 젓가락 같은 도구로 가운데에 구멍을 뚫는다. 구멍이 작으면 튀길 때 다시 붙어버리니 적당한 크기로 뚫는다.

3 두 번 튀기기

- ① 100℃의 기름에서 속까지 익히면서 부풀린다.
- ② 동그랗게 부풀면 160℃ 기름으로 옮겨 노릇하게 한 번 더 튀긴다.
- ③ 이때 모양이 가라앉지 않게 좀 더 튀긴다.

4 집청하기

- ① 물과 설탕, 물엿, 통계피, 유자청 건지를 넣고 끓여 집청 시럽을 만든다.
- ② 튀긴 주악이 아직 뜨거울 때 집청 시럽에 담갔다가 건져 망에 받쳐 여분의 시럽을 뺀다.

재료

배 300g, 설탕 50g
 당액 설탕 100g, 물엿 60g
 색 재료 오미자 물 50g(오미자 35g, 물 100g)

만들기

1 배 손질하기

- ① 배는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자른 다음 최대한 사각형 모양이 나오도록 칼로 자른다.
- ② 다시 배를 3mm 두께로 납작하게 썰어 양쪽 면에 설탕을 뿌린다.
- ③ 끓는 찜통에 배를 올려 살짝 찜 다음 식힌다.

2 오미자 시럽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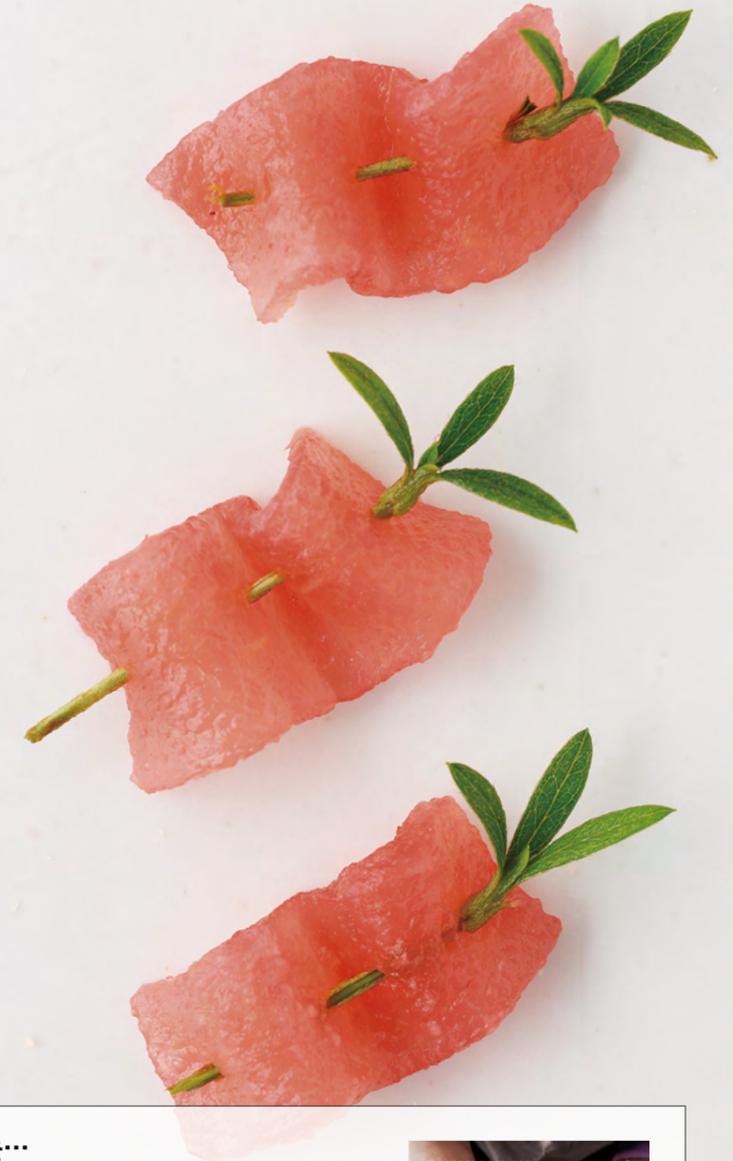
- ① 오미자는 가볍게 헹궈 물에 하룻밤 담가 색을 진하게 우려낸다. 오미자 물에 설탕을 넣고 중간 불로 가열하다 끓으면 약한 불로 줄여 5분 정도 끓인다.
- ② 마지막에 물엿을 넣어 설탕 시럽을 만들어 식힌다.

3 시럽에 담그기

- ① 찜 배를 오미자 시럽에 4시간 정도 담근다.
- ② 원하는 색이 나오면 꺼내어 체에 받쳐 여분의 시럽을 제거한다.
- ③ 시럽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로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다. ●

빨간맛, 배오미자정과

전통 음식의 중요한 재료인 오미자와 배가 만났다. 배의 식감에 오미자의 색과 새콤함을 더하고 설탕과 물엿으로 향취를 높였다.



<반찬등속, 할머니 말씀대로 한과 하는 이야기>는...



충북 지역의 유일한 고조리서인 <반찬등속>을 해석하고 현대식으로 복원해 선보이는 두 번째 책이다. <반찬등속>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81호로 등록되어 청주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 조리서에는 100년 전 청주에 거주했던 진주 강씨 집안의 고조리서로, 김치·장아찌·반찬뿐 아니라 떡과 한과, 술 등 47종의 1910년대 전후 청주 지역 음식이 실려 있다. <반찬등속, 할머니 말씀대로 한과 하는 이야기>는 한과만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조리서에 나온 대로 전통 한과 재현부터 요즘 유행하는 한과 레시피를 자세히 소개한다. 레시피뿐 아니라 다양한 전통 조리서에 나온 한과의 변천사와 제조 과정, 과학적 원리까지 함께 소개해 한과를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지게 만든다.





가을이라 그런 게 아니다... 계절성 우울증 주의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우울감, 쓸쓸함, 무기력감을 느끼지만 식욕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해 괴롭다. 매년 같은 증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면 계절성 우울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Editor: 강은진 *Photo:* 프리픽 *Reference:*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국대학병원

일반 우울증과 원인 달라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기분이 우울하다.” “가을, 겨울에 유난히 몸이 늘어지고 피곤하다.” 이처럼 가을철이 되면서 유독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가을 탄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은 아닌 듯하다. 일시적 우울감이야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지만, 매년 특정 기간에 같은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경우, 흔히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계절성 정동장애’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계절성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7만7,000여 명에 이르고, 5년 전과 비교해 11.7%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요 우울 장애의 11% 정도가 계절성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계절성 우울증은 우울감과 무기력 등의 증상이 가을 또는 겨울에 시작되고 봄에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여름에 심해지는 우울 장애가 존재하지만 극히 드물며, 겨울형 계절성 우울증 같은 경우는 성별, 연령 및 사는 곳의 위도에 따라 다양하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이 나타나며, 위도가 높고 북유럽같이 일조량이 적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 역시 계절성 우울증과 연관 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겨울형 우울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계절성 우울증은 일반 우울증과 다르다. 일조량 변화에 따른 호르몬 수치 감소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기분과 식욕, 수면 조절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세로토닌 분비가 여름에는 증가하고 겨울에는 감소한다. 특히 갑작스럽게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에는 비타민과 멜라토닌 합성까지 줄어든다. 세로토닌 감소로 인한 우울감에 더해 잠까지 많아지니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충분한 햇볕 쬐어야... 광 치료도 좋아

일반 우울증은 불면, 식욕 저하, 체중 감소 증상을 보이지만 계절성 우울증은 과수면 및 식욕, 체중 증가가 특징이

다. 계절성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몸과 마음이 우선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한 일조량은 비타민 D를 만들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도 좋아지게 한다. 인위적으로 밝은 빛에 노출시키는 광 치료도 계절성 우울증 치료의 효과적 방법 중 하나다.

적절한 신체 활동 역시 우울한 기분이 호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 산책을 하는 것이 좋다. 그뿐만 아니라 당분이 많은 음식 섭취를 줄이고, 야간에 스마트폰의 빛에 노출될 경우 생체리듬 불균형이 악화되기 때문에 잠자리에서는 가급적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으로 고립될수록 우울한 기분이 심해지므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하다.

그러나 온종일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신경전달물질이 균형 있게 분비되도록 도와주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계절성 우울증의 경우 일부에서는 조울증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



Welcome to TWO CHAIRS

우리은행의 역사와 전문성이 만나 탄생한 TWO CHAIRS는 종합 자산 관리 은행을 지향하는
우리은행의 프라이빗 बैं킹 브랜드입니다. **자산 관리 전문가와 세무&부동산 전문가**가
고객님의 금융 니즈에 맞는 종합 재무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고객님의 금융 플랜 전반에 최적의 해답을 드리는 평생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01 자산 관리 전문가 그룹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글로벌 투자전략과 전망에 기반하여 주식, 채권, 달러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상담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금융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02 세무 전문가 그룹

절세(양도, 소득, 상속) 방안과 지방세, 간접세, 법인세 관련 상담 및 세금 관련 상담 등을 통해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등 세금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님의 성공을 뒷받침합니다.



03 부동산 전문가 그룹

주택 임대차계약 상담부터 매수와 매도, 보유 부동산의 진단, 가치증진 방안과 투자분석까지 우리은행의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풍부한 부동산 투자 정보와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부동산 투자의 성공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경제의 흐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금융 전문가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 전문가에게 얻은 발 빠른 정보를 통해
투자과 부에 대한 해안을 지닐 수 있습니다.

WEALTH &

※ 본 기사에 포함된 정보는 특정 상품, 서비스 제공 및 투자 권유를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내용도 투자, 세금, 법률, 여타 전문 상담 또는 특정한 사실과 문제에 관한 자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각종 수익률과 위험, 전망 등은 과거의 수익률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스스로 해야 하며, 당행은 투자에 따른 결과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은행 TCE본점센터
프라이빗에 시크릿을 더한
완전한 자산관리

오랜 금융 역사가 축적한 자산관리 경험 노하우는 모두가 프라이빗만을 외칠 때
보다 밀착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갔다. 슈퍼리치 자산가를 위한 완전한 자산관리,
우리은행 TCE본점센터에서 만나본다.

Writer: 강은진 Photo: 박충렬





윤미란 센터장과 함께 한자리에 모인 TCE본점센터 직원들. 모두 스페셜한 경력의 소유자들이다.

‘가문의 富’를 지킨다는 것

“진짜 부자는 강북에 산다”고 말한다. 강남이 CEO, 전문직 자수성가형 부자라면, 강북은 기업 오너 등 전통의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는 실제 조사로도 확인된다. 지난 2020년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를 보면 상장사 주식 부호 중 1조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기업인은 총 17명이었으며, 이 중 12명이 강북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들이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다. 너도나도 최첨단 금융 시스템을 앞세워 남다른 자산관리 서비스를 자랑하지만,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전통의 부자들은 누구와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왔

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126년 역사의 우리은행이다. 그리고 그 경험과 노하우가 고스란히 축적된 곳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자리한 TWO CHAIRS Exclusive 본점센터(이하 TCE본점센터)다.

상위 1%의 초고액 자산가에게 개인·기업 복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은행 TWO CHAIRS Exclusive는 강남센터와 시그니처센터, 본점센터 단 세 곳뿐이다. 특히 강북 최초이자 유일의 TCE센터라는 타이틀이 붙은 TCE본점센터는 자산관리 시장이 떠오르기 전부터 오랫동안 초고액 자산가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애초 설립 목표가 ‘패밀리 오피스’이며, 그 역할을 수행 중인 센터라고 하면 TCE본점센터의 위상과 위치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그야말로 ‘가문의 富’를 지키는 수문장인 셈이다.

슈퍼리치가 원하는 자산관리

패밀리 오피스란 초고액 자산가, 즉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다. 한 유력 경제 일간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5대 증권사 패밀리 오피스 합산 자산 규모가 2024년 6월 기준 10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섬에 급성장하고 있다. 패밀리 오피스 고객은 법인 기업 가문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 고객이 마치 하나의 자산운용사처럼 주식, 채권, 대체투자 자산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매우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불가피하다. 또 단순 자산 증식에 그치지 않고 부의 형성과 이전도 유도해야 하는 미션까지 더해져 자산관리의 정점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TCE본점센터는 국내 슈퍼리치 고객들의 ‘금융 집사’로서 조용히 활약 중이다.

TCE본점센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프라이빗을 넘어 시크릿하다는 점이다. 내부 분위기도 흐름을 같이

한다. 넓고 고급스러운 실내지만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하고, 모든 공간이 내부에서 무슨 업무를 처리하는지 모를 만큼 독립된 형태다.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한 대기업 오너 패밀리뿐 아니라 스포츠, 연예계 등 유명 스타들에게는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슈퍼리치들이 원하는 것은 철저한 사생활 보호 같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개인금융을 넘어 기업금융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패밀리 오피스를 지향하는 TCE본점센터가 우리은행 본점에 위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슈퍼리치 고객이 원하는 어떠한 서비스도 한자리에서 가능한 곳이 TCE본점센터다. 부동산, 세무, 법률, 외환, 상속, 여신 등 전 영역에 걸쳐 윈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세무, 투자,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와 본점의 여신, 외환 등 기업금융팀 그리고 해외 세법 및 국제법 등 법률팀까지 협업이 기민하게 이뤄진다. 본점센터라는 명칭 그대로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상주하며 우리은행 본점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슈퍼리치 고객들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공간을 그에 맞게 구성한 TCE본점센터. 고객 만족도가 매우 높은 부분이다.

함께한다. TCE본점센터 고객은 우리은행 전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실제로 TCE본점센터 고객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VIP 센터

TCE본점센터의 신규 고객 영업 대부분은 기존 고객에 의해 이루어진다. 단순 입소문을 넘어 직접 경험해본 고객들이 믿고 소개하는 것이다. 타 브랜드에서 자신들만의 특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아무리 자랑한다 해도, 대한민국 기업금융의 명가 '우리은행'까지 통째로 이용하고 있는 TCE본점센터를 흉내 내거나 이길 수는 없을 것 아닌가. 슈퍼리치 고객이 경험을 통해 보증하는 실력인 셈이다.



TCE본점센터 회의실은 개인 및 기업금융 컨설팅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진다.

TCE본점센터는 우리은행에서 잔뼈가 굵은 윤미란 센터장을 중심으로 PB 경력만 평균 15년 이상의 특별한 경력을 자랑하는 PB지점장과 팀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외국계 금융회사 및 증권사에서 경력을 쌓은 PB, 세무사 출신 PB, 우리은행 PB드림팀에 선발된 차세대 PB까지 저마다 스페셜한 경력을 자랑한다.

TCE본점센터의 목표는 명확하다. 우리은행을 대표하는 TCE센터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VIP 센터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북 지역 슈퍼리치 고객 전담 거점 센터로서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프라이빗한 서비스에 내밀한 시크릿을 더한 완전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우리은행 TCE본점센터다. ●



오피스 패밀리를 지향하는 TCE본점센터의 고객 상담실은 규모부터 남다르다.



TCE본점센터는 우리은행에서 잔뼈가 굵은 윤미란 센터장을 중심으로 PB 경력만 평균 15년 이상의 특별한 경력을 자랑하는 PB지점장과 팀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외국계 금융회사 및 증권사에서 경력을 쌓은 PB, 세무사 출신 PB, 우리은행 PB드림팀에 선발된 차세대 PB까지 저마다 스페셜한 경력을 자랑한다. ”

The Best Team Profile

우리은행 자산관리 드림팀 6人

윤미란 TCE본점센터 센터장

- PB 경력 7년, 지점장/센터장 경력 3년
- 광화문/법조타운/워커힐지점 PB
- 본점영업부/삼성동금융센터 지점장 역임
- 2018년 PB우수직원 수상
- 2018년 ALL TOGETHER 영업우수직원 수상



남홍식 TCE본점센터 PB지점장

- PB 경력 21년
- CITI BANK 반포/올림픽지점 대표 PB
- CITI ASIA REGION SALES 수상
- HSBC 방배지점 PB
- NH투자증권 강남프리미어 블루지점 PB
- 2022년 대한민국 WEALTH MANAGER BEST WM 100인 선정



김혜원 TCE본점센터 PB지점장

- PB 경력 19년
- HSBC은행 압구정지점 PB
- 우리은행 본점 패밀리 오피스센터 PB
- 2009년 HSBC BEST PB 선정
- 2022년 대한민국 WEALTH MANAGER BEST WM 100인 선정



김언정 TCE본점센터 PB팀장

- PB 세무사 경력 17년
-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팀장
- CEO 기업승계 및 자산 컨설팅 담당
- 우리은행 겸임교수
- 금융연수원 세법 강사
- 세무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김희경 TCE본점센터 PB팀장

- PB 경력 16년
- 2005년 우리은행 PB드림팀 선발
- 강남/송파영업본부 PB
- 2023년 자산관리 영업우수직원 수상
- 서울대 PB자산관리 고급과정 수료
-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이승희 TCE본점센터 PB팀장

- PB 경력 14년
- 압구정/삼성동/방배지점 PB
- 2021년 강남영업본부 영업우수직원 수상
- 서울대 PB자산관리 고급과정 수료
-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희비가 엇갈리는 유가와 금값

세계 경기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금 시세와 국제유가는 최근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둘의 근본적인 상승 요인에는 차이가 있다. 앞으로 금값과 국제유가는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보자.

Writer: 박석현(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투자전략팀 Equity Analyst) Photo: 프리픽



국제 금 시세는 8월 9일 기준 2,431달러(단위 트로이온스)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17.8% 올랐다. 지난해 13.1% 상승에 이어 2년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원유 가격도 올해 들어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8월 9일 배럴당 76.84달러로 마감되며 지난해 말 대비 7.2% 상승했다. 하지만 WTI 가격의 경우 지난해 10.7% 하락했다는 점에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는 금 가격과는 사뭇 다른 가격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여건 및 산업구조 변화(수요)와 주요 산유국 생산 정책(공급)에 큰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전쟁 같은 지정학적 요인과 미국 달러화 움직임, 금리 변화 등의 요인도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비교적 높은 특성을 갖는다.

금 가격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인플레이션과 금리(명목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금리)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글로벌 경기에 덜 민감하다는 특성이 있다. 또 금은 실물 수요가 꾸준히 뒷받침되는 반면, 금 공급(생산)량은 한계가 있다는 최근 몇 년간의 수요·공급 특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망에서도 국제유가와 금 가격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국제유가는 원유 시장 수급 전망 불확실성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는 반면, 금의 경우 견고한 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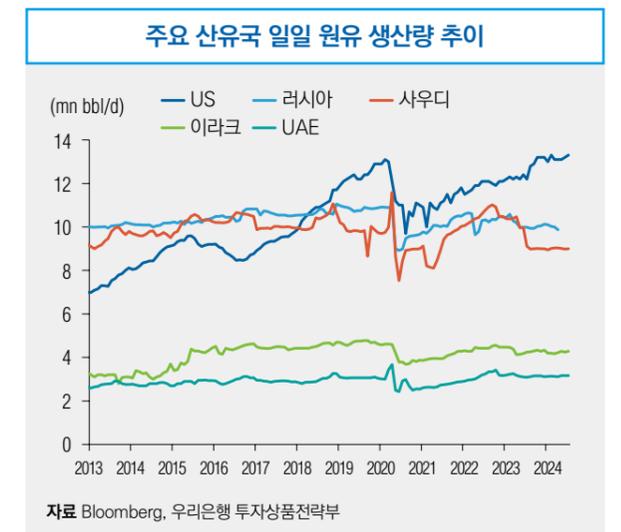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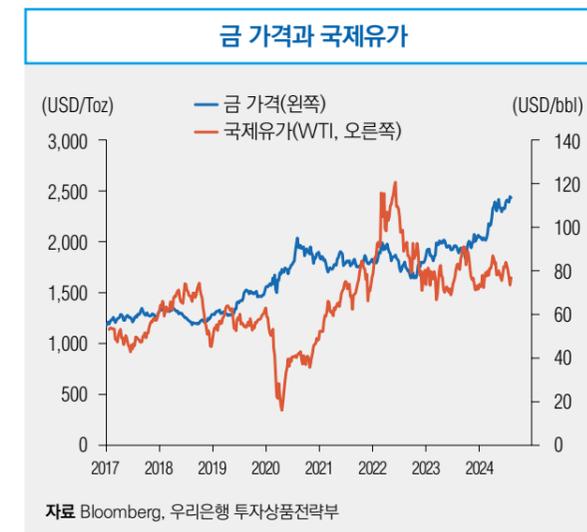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여건 및 산업구조 변화(수요)와 주요 산유국 생산 정책(공급)에 큰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 전쟁 같은 지정학적 요인과 미국 달러화 움직임, 금리 변화 등의 요인도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비교적 높은 특성을 갖는다.

”

와 제한적 공급이라는 수요 우위 전망에 여전히 힘이 실리고 있다.

공급 우위가 이어질 전 세계 원유 시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장기화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더해졌다. 두 전쟁 모두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동의 전운은 확전으로 번질 위험마저 안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원유가격 급등의 도화선이 돼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짙어지는 중동 지역 전운은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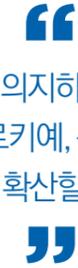
금등 위험을 부채질한다. 그럼에도 국제유가 움직임은 우려만큼 오르지 않는데, 이는 전쟁의 범위에 산유국 영토가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이유 외에도 원유 수급 전망에서 수요 우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원유 수요는 중국 경제 둔화 지속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로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의 유가 레벨 확보가 필수적인 산유국들(OPEC+)은 수요 둔화에 대응하는 원유 생산량 감축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감산 정책이 유가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OPEC+ 감산 정책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미국이 원유 생산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원유 생산량은 올해 7월 기준 하루 1,330만 배럴

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를 경신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000만 배럴 밑으로 내려갔다. OPEC+ 감산에 따른 혜택이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미국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원유 시장점유율 하락을 두고 볼 수만 없는 OPEC+ 입장(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원유 생산량 미국 대비 각각 70% 하회)을 감안할 때, 무작정 감산을 고수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OPEC+는 올해 4분기부터 감산 정책 완화(자발적 감산 규모 단계적 축소)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추세적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원유 생산 확대 지속(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원유 생산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과 OPEC+ 감산 단계적 축소 등 공급 증가 요인을 감안할 때 국제유가는 하락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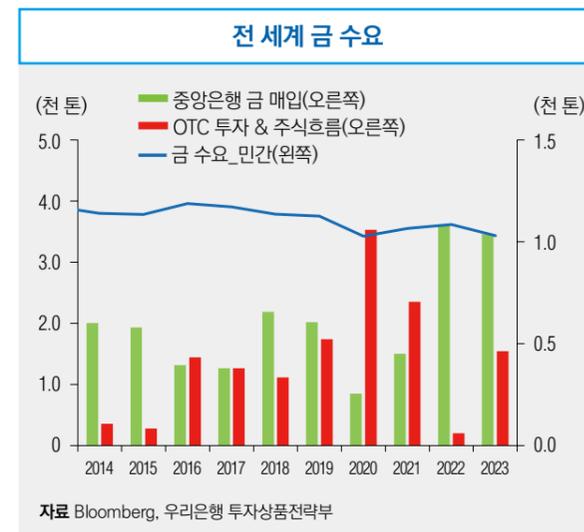
금가격 상승이 중앙은행 매입 수요에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을 수 있지만, 최근 수년간 인도, 중국, 튀르키예, 동유럽을 중심으로 신흥국 중앙은행이 주도한 금 매입이 내년에는 선진국 중앙은행으로도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 금수요 이어질 전망

지난해 이후 전 세계 금 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8월 9일까지 누적 수익률은 +33.8%를 기록하며 동 기간 각각 +2.8%와 +11.9%를 기록한 선진국 국채 및 글로벌 회사채 투자수익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또한 같은 기간 +14.6%에 그친 신흥국 주식시장 수익률을 2배 이상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빅테크 주식이 주도한 선진국 주식시장 수익률 +32.7%를 소폭 상회하는 수익률을 달성했다. 금 가격이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금 매입 수요가 늘었다는 점인데, 특히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증가가 두드러진다. 전 세계 금 수요의 90%가량은 그동안 민간 부문이 차지해왔는데, 민간 금 수요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거의 제자리걸음을 이어갔다. 반면 중앙은행 금 매입은 2021년 450톤에서 2022년 1,082톤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3년에도 1,000톤 이상의 대규모 금 매입이 이어졌고, 올해 들어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금 수요에서 차지하는 민간 부문 비중은 2022년부터 70%대로 하락했고, 중앙은행 비중은 2배 이상 높아진 20%대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금 가격 상승이 중앙은행 매입 수요에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을 수 있지만, 최근 수년간 인도, 중국, 튀르키예, 동유럽을 중심으로 신흥국 중앙은행이 주도한 금 매입이 내년에는 선진국 중앙은행으로도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 금 협회 World Gold Council가 지난 6월 발표한 전 세계 중앙은행 대상 향후 1년간 금 매입 의사에 대한 서베이 결과 29%가 금 매입을 늘릴 것임을 밝혔고, 이는 2018년 서베이 실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공급(생산)량 증가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산업 특성상 금 가격은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데,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매입 수요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수요 우위에 따른 금 가격 상승세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연준 금리인하 사이클과 맞물려 금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실질금리 추이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도 금 가격 상승 전망에 힘을 보태는 요인이 된다. ●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투자전략팀 Equity Analyst

인구 변화가 가져올 부동산 투자 환경의 변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국내 인구 변화가 현재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투자 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Writer: 조규성(우리는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동산컨설팅팀 부동산전문가) Photo: 프리픽



국내 인구의 변화

부동산시장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그중에서도 인구 변화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인구는 주택 수요를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는 부동산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77만 명으로 전년 대비 8만여 명이 증가했지만, 오히려 내국인 수는 전년 대비 10만 명이 감소했다. 증가한 것은 외국인 수로 무려 18만 명이 늘었다. 주목할 것은 수치상의 인구는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내국인 인구의 감소가 꽤 심각하다는 것이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아파트의 비중 확대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주목해볼 만한 점이 몇 가지 더 있다. 첫째, 사실상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가

구의 35.5%에 이르는 1인 가구의 증가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의외의 사실은 수도권에 쏠려 있을 것 같은 1인 가구의 비중은 전국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1인 가구 중 고령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 지방의 고령화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젊은 1인 가구가 일자리와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한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거처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고령화 인구의 증가다. 전년 대비 고령 인구는 0.9% 상승했는데, 내국인 고령 인구의 비중은 19.1%에 이른다. 기대 여명이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어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비중은 점차 높아져 10년 뒤엔 28.7%에 이를 것이라고 하니, 점차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파트 비중의 확대도 주목해볼 만하다. 현재 국내 총 주택 1,955만 호 가운데 아파트 비중은 64.6%에 달한다. 전년보다 0.6% 증가한 수치인데,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아파트의 비중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2023년 시도별 고령자 1인 가구 비율



예상된다. 아파트는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에 다수 포진돼 있고, 이 구성은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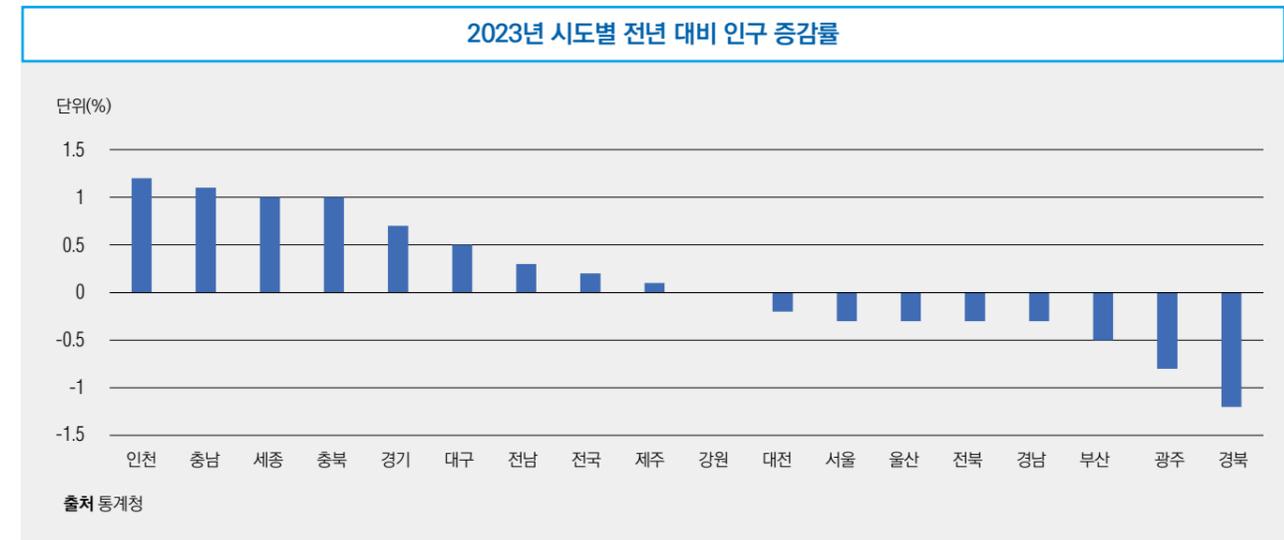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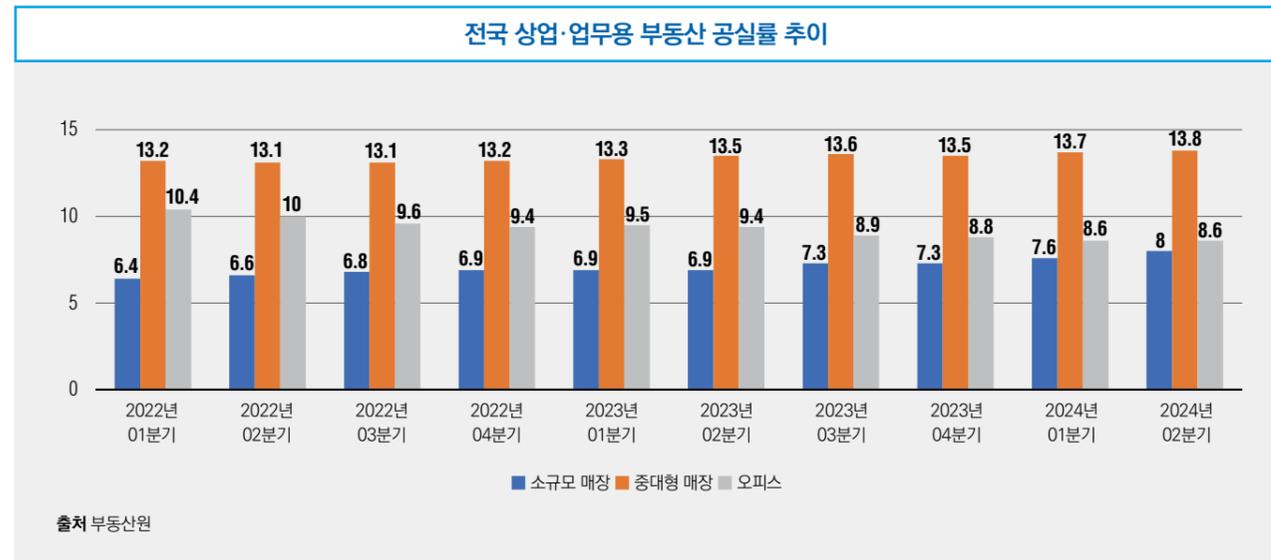
그렇다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첫째, 대형 주택의 수요보다 소형 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출산율은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가구 구성원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구성원이 적은 가구에 대형 주택은 비효율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가구원이 적다고 좁은 공간을 선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대형 주택을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크다 보니 소형 주택의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결국 대형 주택은 고가 주택에 한정된 상품이 될 가능성이 크고, 상품성 측면에서도 선호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전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비록 1인 가구 등이 증가하며 총가구수는 늘어났지만,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면 어쩔 수 없이 주

택을 구매할 수요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택 수요의 감소는 신규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인구 감소 폭이 적거나 타 지역에서 이주해 주택 수요가 활발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노후된 빈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감소해 주택 수요가 줄어드니 신규 주택을 지어도 구입할 사람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빈집이 증가하는 지역은 전반적으로 도시가 노후화되며 해당 지역 인구 감소를 더 가속화할 수 있다.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일자리와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한 지역에 인구는 몰릴 수밖에 없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과의 부동산 거래량 차이가 더 벌어지고, 가격 격차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대도시처럼 인구가 몰리는 지역은 더욱 과밀해져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빈집이 넘치는 공동화 현상이 예상되는 것이다.

인구 변화의 영향은 상업용 부동산도 예외일 수 없다. 서울 주요 지역 대형 오피스 빌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젊은 소비자들의 수가 줄어든다



면 상업용 부동산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수요가 감소해서 임차인의 영업은 악화되면서 공실률은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부동산 투자전략의 필요

부동산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돼도 반드시 필요한 재화인 점은 틀림없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변화된 인구구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우수한 입지를 선별하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도 인구가 모여들 수밖에 없는 입지는 분명 존재한다. 최근 지역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이 혹시 단기적 이유 때문은 아닌지, 일자리와 생활 편의시설 등이 이미 잘 갖춰져 장기적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지역에 적합한 상품의 부동산 투자를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일어나는 지역의 부동산 투자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투자전략을 세울 때 입지도 중요하지만 상품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그동안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여긴 소형 가구를 위한 부동산 개발이나 고령자를 위한 부동산 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최근 1인 가구를 위한 공유 주거 등이 개발되고 점차 수가 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에서 실버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인식해 도심지 내 실버타운을 공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움직임을 투자자들이 빠르게 파악하고 투자 포인트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1인 가구나 고령 인구를 위한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리츠에 투자하거나, 공급자로서 임대형 기숙사 같은 용도의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방법 등 다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투자 환경이 변하면 그에 대응하는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이제는 변화하는 인구구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 투자를 준비해야 할 때다. ●

조규성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동산컨설팅팀 부동산전문가



2024년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

2024년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다양한 세법 개정안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부동산 관련 특례법 등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Writer. 양동현(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Photo. 프리픽



정부는 7월 25일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이라는 취지하에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에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및 가상 자산의 과세를 2년 유예했으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많이 나왔던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개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개정안 중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 자산 과세 유예

	현행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25.1.1. 시행 예정	폐지 *현행 양도소득세 유지
가상 자산 과세	'25.1.1. 시행 예정	'27.1.1. 시행 예정

2020년 정부의 '금융세계 선진화 추진 방향'의 방안으로 시작된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소득세 체계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추가 도입해 2023년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되어 2025년인 내년에 시행하게 되었다. 금융투자소득은 기존에 비과세였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 및 채권의 매매차익, 기존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일부 등을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누어 1그룹(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 등)은 연 5,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그룹(기타 금융투자소득)은 연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22%(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7.5%)를 과세하는 새로운 세목이다. 주식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투자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양도소득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소득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세법 개정을 통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추가되었으며,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2025년

“

2020년 정부의 '금융세계 선진화 추진 방향'의 방안으로 시작된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소득세 체계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추가 도입해 2023년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되어 2025년인 내년에 시행하게 되었다.

”

에 시행할 예정이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하며,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2)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①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및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상속·증여세율은 2000년 이후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물가·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0%의 최저세율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 특례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하며,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 특례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요건에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 이상이 되어도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대로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것이다.



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30억원 초과 시 적용되는 최고세율 50%를 10억 초과 시 4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같은 경우 5,000만원 공제(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 추가 1억원)를 초과하는 추가 1억원에 대해서 10%가 적용된 1,000만원의 세금을 내고 다시 또 추가 1억원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 2,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세법 개정안으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초과한 추가 2억원에 대해서는 10%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증여 금액	현행	개정안
*1억원+1억원	1,000만원+2,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1,000만원 =2,000만원

*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증여 금액

②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변경

	현행	개정안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000만원	1인당 5억원

상속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상속 공제금액은 기초공제 2억원, 그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 등)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금액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았다. 그밖의 인적공제 금액에서 자녀공제만 생각하는 경우 자녀가 7명(7명×5,000만원=3억5,000만원)인 경우에만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3억5,000만원을 합친 금액이 일괄공제 5억원보다 큰 5억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억원으로 상향되면 자녀 1명만 있는 경우 7억원, 자녀가 2명인 경우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3)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①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신규 취득 시

신규 취득 주택 요건	소재지	인구 감소 지역
	가액 상한	공시가격 4억원
	취득 기한	'24.1.4.~'26.12.31.
효과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②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신규 취득 시

신규 취득 주택 요건	소재지	수도권 밖의 지역
	규모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기한	'24.1.10~'25.12.31.
효과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존의 1주택 보유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 특례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 특례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하며,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 특례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요건에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 이상이 되어도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대로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것이다.

4) 결혼·출산·양육 지원

① 결혼 세액공제 신설

적용 대상	혼인신고를 하는 자('24.1.1. 이후)
적용 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공제금액	최대 100만원(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 기한	3년('24~'26년 혼인신고분)

②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현행	개정안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전액 비과세 *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기업이 2년 내 지급한 경우

③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현행		개정안
공제 대상	8~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		동일
공제금액	첫째	15만원	25만원
	둘째	20만원	3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인	40만원/인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세법적 지원책들이 나왔다.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으며, 얼마 전 모 대기업의 직원 출산지원금 1억원에 대해 증여세 또는 근로소득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정부에서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액 비과세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고, 8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에 대한 특례, 일반투자형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 신설, 상생임대주택 적용 기한 연장,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 추가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있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제 시행하려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원안대로 통과될지 일부 수정되어 통과될지는 신문기사나 뉴스 등을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수시로 숙지하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양동현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For Readers

〈TWO CHAIRS〉에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나날이 발전하는 〈TWO CHAIR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TWO CHAIRS〉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TWO CHAIRS〉에 대한 만족도와 매거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단의 QR코드를 촬영해 설문 조사에 접속한 후
양식에 맞게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설문에 응답한 후 제출까지 누르면 완료됩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하신 분 중 두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QR코드 촬영 후 양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

참여 기간 2024년 9월 13일(금)~10월 25일(금)

당첨자 안내 개별 통보

- ※ 당첨자에게는 선물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립니다.
- ※ 잘못된 개인 정보 입력으로 인해 당첨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이 반송될 경우 재발송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재고 수량에 따라 상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pecial Gift



파나소닉 페이스 스티머 EX-XS01
2명



WON뱅크 바로가기

〈TWO CHAIRS〉를 모바일과 온라인에서도 자유롭게 즐기세요.

TWO CHAIRS 모바일 웹진

스마트폰으로 좌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우리WON뱅크(App)으로 연결됩니다.
우리WON뱅크 → 전체메뉴 [부가서비스] → TWO CHAIRS → TWO CHAIRS 웹진
[TWO CHAIRS웹진] 배너 상단 구독하기를 신청하시면 매월 첫째주,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TWO CHAIRS 온라인 웹진

www.wooribank.com → 전체 메뉴 → 투체어스PB → TWO CHAIRS 웹진

Welcome to TWO CHAIRS

TWO CHAIRS 특화센터

TWO CHAIRS W, TWO CHAIRS Exclusive 센터는 우리은행의 고품격 자산관리 전문센터입니다.

TWO CHAIRS W

청담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청담동) 신영빌딩 6층	T. 02-511-4909(내선 455, 510, 512)
대치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대치동) 동하빌딩 1층	T. 02-501-1639(내선 513, 530)
부산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20(우동) 4층	T. 051-741-3625(내선 213~214)
압구정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 트리니티 플레이스빌딩 4층	T. 02-518-6135



TWO CHAIRS W 청담



TWO CHAIRS W 대치



TWO CHAIRS W 부산

TWO CHAIRS Exclusive

강남센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 GS타워 6층	T. 02-508-3456(내선 310~314)
본점센터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우리은행 본점 1층	T. 02-2002-3316(내선 3312, 3367)
시그니처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서초동) GT타워 24층	T. 02-562-7964(내선 405, 406)



TCE강남센터



TCE본점센터



TCE시그니처센터

TWO CHAIRS 전문 서비스

자기진단, 금융투자, 세무/부동산, 은행/노후설계 등 우리은행 TWO CHAIRS 특화센터와 함께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아보세요.

- 자산관리 자문서비스** 금융시장 분석과 포트폴리오 제안, 은퇴와 노후설계 솔루션 제공, 듀얼케어 자산관리서비스 등
- 세무 자문서비스** 자산의 보유와 매도(종부세, 양도세), 자산이전(상속·증여세), 기업승계 포함 법인 관련 세무자문 등
- 부동산 자문서비스** 부동산 투자정보 분석, 부동산 매수 및 매도자문, 보유 부동산 진단을 통한 케어 특화서비스 제공 등

“전 여기서만 관리받아요”

당신의 모든 것에 집중하니까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를 만나보세요

자산관리의 A TO Z
TWO CHAIRS



전문가의 안정적인 1:1 자산관리, TWO CHAIRS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별 자산현황과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 추천 및 세무, 부동산 분야
전문가 상담 지원

TWO CHAIRS 기본서비스

전문 상담공간, 대어금고 서비스,
시크릿뱅킹 서비스,
예외 유약·이주 상담 지원, TWO CHAIRS 매거진

TWO CHAIRS 특화서비스

호텔, 다이닝,
한우 배송, 가전, 꽃머니 등

※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는 가까운 영업점 전담직원에게 문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TWO CHAIRS 기본 서비스는 우리은행 TC등급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영업점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TWO CHAIRS 특화 서비스는 금융거래 현황에 따라 선정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은행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일 2024-1824(2024.02.23~2025.02.26)